

경인일보

kyeongin com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제21282호 1판 구독·광고/(032)861-3200 (031)231-5114 1945년 창간

市, 억대 재산 사라져도 까맣게 몰랐다

수십억원 들인 도매물류센터 운영맡긴 조합 관리감독 소홀

市집기류 공매처분 눈치못채 뒤늦게 '반환·손배訴' 진행중

인천시가 수십 억원을 들여 세운 중 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관 리・감독을 허술하게 해 시민 세금이 사라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는 2010년 인천시 중구에 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완공해 인 천생활잡화유통사업협동조합(이하 생활잡화조합)에 운영을 맡겼다. 생 활잡화조합은 센터 운영 1년도 채 되 지 않아 자금 문제로 조합원 간 갈등 이 생겼다. 결국 2011년 4명의 조합원 이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과 물품 구입비 등으로 투자한 1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생활잡화조합이 돈을 주지 않자 1억9천만원 상당의 센터 내 집 기류에 압류를 걸고, 공매 처분해 나 눠 가졌다. 문제는 공매 처분한 집기 류의 대부분인 1억4천만원 상당의 물 품이 시 자산이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지만 인천시 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013년 6월께 민원인과 상담과정에서야 비 로소 시 재산이 공매 처분된 것을 알 아챘고, 같은해 11월에 이르러서야 공매금을 나눠 가진 4명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함 께 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는 책임을 물어 생활잡화조합 이사장 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두 가 지 소송 모두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잡화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 실이었다. 3년 가까운 시간 시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 관리, 감독 소홀 로밖에 볼수없다"고말했다.

하지만 시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시 관계자는 "시 법무담당관실과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구한 결과 관 리협약에 따라 시는 시설관리 책임만 있을 뿐 납품, 배송 등 상거래와 관련 된 부분의 관리·감독권, 책임은 없다 는 해석을 얻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은 누구도 시의 관리, 감 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센터 건립 사업비는 총 55억9천 800만원이며 이 중 35억4천500만원 이 시비다. 시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 축비, 시설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도착예정시간 현세증 Bus No. Est. Arrival Distance (Stops)

교육인천 '황우여의 꿈' 이뤄지나

뉴스분석

13년 동안 국회 교육위 활동 송도글로벌캠 조성 '탄력'

국제화특구 지원 강화 기대

신임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국회의 원이 내정되면서, 인천 교육 발전에 지고 있다.

인천이 '선진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 이다. 황우여 내정자는 총 18년의 국 회의원 생활 중 13년을 국회 교육위 워회에서 활동했다.

우선 인천대가 반기고 있다. 정부 로부터의 국비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인천 대는 지난해 국립대법인으로 전환됐 지만,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 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법인 전환 후 5년간 인천시가 재정지원을 하겠다 는 내용의 MOU를 빌미로 대학운영

'교육부 장관' 내정 의미

비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병길 인천대 부총장은 "황우여 내정자는 국립대법인 전환 과정에서도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활 동하며 큰 역할을 해줬다"면서 "기획 재정부와의 원만한 협의로 인천대 국 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 고있다"고말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송도글로 상된다. 교육부는 '학교설립 승인 권'을 갖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현 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컨서바토리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주립대(UNLV) 유치를 추진 중이 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대학을 설립 할 수 없다"며 "이들 대학을 송도에 설립하기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

다. 교육부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 해 이들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돼 '무늬만 특 구'라는 지적을 받는 상태다. 인천 시 관계자는 "황우여 내정자가 인천 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이 사 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본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청연 인 천시 교육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가 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 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대화의 폭 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했다.

황우여 내정자는 지난 15일 내정 직후 가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 서 "인천에서 처음 국회의원을 시 작했을 때 교육인천을 만드는 게 꿈 이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뿐 아 니라 세계 선진교육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광역버스 입석금지 "자리 없어요"

인천과 서울간 고속화도로를 지나는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된 첫날인 16일 오전 부평역 인근 정류장에서 광역버스 기사가 좌석이 없다며 버스에 오르려는 승객들을 제 지하고 있다. | 관련기사 22면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오늘부터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4 박태환 200m 올시즌 세계 1위 14

고향생각 평생 지우지못한 김차영

为铅地

문학속 인천을 찾다 경인일보 연중기획 | 시리즈 15면

시인이면 누구나 '시란 무엇인가', '시는 왜 쓰느냐' 하는 질문에 늘 몰 리게 마련이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모더니즘 시 인 김차영(金次榮)은 시집 '부릅뜬 태 풍의 눈'(1974)에서 "시란 삶의 의미 와 똑같이 절대로 비구상적(非求償 的)인 것이다. 그것은 구도자(求道 者)가 고행을 통하여 얻어내는 아픔 속의 희열과 같은 느낌인 것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묻고 답했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 '추상애로 (抽象隘路)'는 제목 그대로 추상적이 라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바람대로 프

랑스나 영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보 다 더 유명해졌을까. 김차영의 작품세 계를 깊게 알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 다. 그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 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대 시인 박인환은 김차영에 대 해 "시에 있어서 모든 문화적인 체계 를 조리있게 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철학도 얘기하고 사회학도 얘기하고 사랑도 하고 눈물도 흘린다. 조금도 이성의 동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흥분된 기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천상병처럼 유명해지고 싶지만, 천상병처럼 쉬운 시는 죽어도 못 쓴 다던 그는 사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강화와 인천에 대해서만은 친절한 시 인이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 강화 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이면에 있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았다. 보일 듯 보 이지 않는 옛 고려의 흔적을 '江都(강 도)의 하늘'이란 시에 담기도 했다. 인천을 떠나 멀리 있어도 늘 인천 문 화를 그리워하고 걱정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알림

강남 길목서 만난 '실시간 경인일보'

신사동 전광판 추가… 美뉴욕 등 7곳 운영



전국 지방신문 최초로 서울지하철 2호 선과 강남 논현역 앞 등 서울 심장부에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선보이며 동영상 및 실시간 자막 뉴스를 제공해 온 경인 일보가 교통 요지인 강남구 신사동에 대 형 전광판을 추가로 확보해 다양한 정 보를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수도권 주민 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미 지난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대 형 전광판을 통해 뉴스서비스 등을 제공 해 시방신문의 신기원을 이둔 경인일보

가 뉴미디어 시대에 더욱 발빠르게 대처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경부고속도로선상 한남대교 한남IC 진입방향으로 가다 만나볼 수 있는 신규 전광판은 경부고속도로 출발점이자 강남 진입로에 위치해, 매일 이곳을 지나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경인일보가 제공하는 다양 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인일보는 이미 수원역과 서울역・논현역・충무로역・신설동역 등 수도권 최대 밀집지역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뉴스 속보, 공익 및 기업광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도권 정보 소외 현상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신사역 전광판으로 경인일보의 전광판 매 체는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창간 69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스마트 경인

2014 협성대학교 글로벌 CEO 아카데미 과정 제4기 모집 Hyupsung 협성대학교 Global CEO Academy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저명한 외부 강사진" ■ 교육특징 • 우수한 강사진 -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저명한 외부 강사진 ● 서울·경인 지역을 연결한 글로벌 네트워크 - 경인일보, 수원방송의 언론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여성경제인 연합회, 한민족세계연합회의 세계 17개국 한인체육회장과의 교류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방식 도입 경성대교수 ANDA 한국전쟁기념재단이사장 경기도지사 소설가 화성 갑 국회의원 경인일보 사장 미술평론가 - 사례연구발표, 해외산업시찰, 글로벌매너, 인문학 등 지금까지 KOTRA 중국전문가 재테크 칼럼리스트 전) KBS사장 협성대 석좌교수 유경희예술처방연구소장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방식 도입 - 퇴근 후 수업 전 석식과 다과의 시간에 서로의 정보공유 및 친교의 시간 ■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록기간: 2014. 7. 21 (월) ~ 8. 29 (금) 윤동한 이희수 조영신 황우석 유응렬 조용진 허범도 한국콜마회장 전) 중소기업청 차장 에이치바이온대표이사 SBS골프해설위원 한양대박물관장 두원공대교수 얼굴경영연구소장 스포츠 해설가 ·개 강 일: 2014. 9. 17 (수) 19:00 (*주1일총15주간교육) 국제매너 전) 서울대교수 전) 복싱 세계챔피온 · 강의시간: 매주 수요일 18:30 ~ 21:00 · 교육장소: 협성대학교 이공관 3층 국제회의실 · 연 락 처: 대외협력과 031-299-1361, 010-3025-508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http://www.uhs.ac.kr) 참조

종합 제21282호 **경인일보**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극적 맞손 도의회 '지각 임시회'

與野 갈등 빚던 윤리특별위원장직 1년씩 맡기로 합의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임시회 21일까지 연장 불가피

파행으로 치닫던 경기도의회(경인일 보 7월 16일자 2면 보도)가 여야간 갈 등을 빚던 윤리특별위원장직 소관문 제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17일 까지로 예정됐던 제289회 임시회는 21일까지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16일 도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 주연합은 윤리위원장을 여야가 1년 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8대 후 반기에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윤리위는 9대 의회 개원 후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8대 전반기까지 윤리위가 다수당 몫이었다"며 위원 장직을 맡겠다고 주장, 논란이 됐다.

이날 오전 강득구 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도 윤리위원장직을 어느 당 에서 맡을지에 대한 논의는 평행선 만 달렸다. 새정치연합은 "멈춰선 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17일 단 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 등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새누리당이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받아치며 힘겨루 기가 이어졌다.

마라톤협상이 이어진 끝에 양당 은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회의 파행이 양쪽 모두에 손 실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 지난 15일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대로 윤 리특별위원장직을 1년씩 담당하기 로 했다. 대신 윤리특별위처럼 항상 회의를 열 수 있는 '상설' 특위가 아 닌,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꾸리는 '비상설' 특위의 위원장을 여 야가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비 상설 특위가 도나 도교육청을 견제 하는 수단이 되는 만큼 새정치연합 이 도를, 새누리당이 도교육청을 겨 냥해 특위를 무더기로 구성하는 점

17일까지였던 임시회 일정은 21일 까지로 연기될 전망이다. 자리다툼에 문을 열자마자 늦장회의를 하게 된 셈이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무산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배분, 도•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17일 본회의에 서 진행하고, 21일 예산결산특위・윤 리위 구성과 조례안 심의를 마친다는

도의회 관계자는 "극적으로 합의 가 돼 다행이지만 시작부터 싸움만 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긴 어렵게 됐다"며 "현안이 산적한 만큼 남은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좋겠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신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홍기헌씨



신임 경기문 화재단 이사 장에 홍기헌 (75·사진) 전 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홍 이사장은 수원고와 경희대 법률 과를 졸업한 후 MBC보도국 기자를 거 쳐 경기일보 이사와 사장 등을 역임했 다. 2000년부터 2년동안 경기문화재단

3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수원시의회 의장을 거쳐 현재 경기 다문화사랑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경기도지사 가 겸임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에 넘겨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모집

가천대학교의 통합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명문의 더 큰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속도와 파워로

교육부대학특성화사업 수도권공동1위!

인천시, 안전 인프라 · 매뉴얼 만든다

인천시가 재난・재해에 대비하고자 안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부적 인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을막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부평역 주변과 지하상가 등 9개 역세권에 예•경보시 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 했거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상 인과 이용객 등에게 상황을 실시간으 로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역세권 주 변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고 유동 인구

가 많다"며 "화재 등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신속한 초동조치 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현장 위주의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 대 응 매뉴얼 48개 가운데 인천 실정에 맞는 매뉴얼은 24개. 시는 지난달 '위 기관리 현장 조치 공동행동매뉴얼'을 작성 · 배포한 데 이어 '위기대응 개인 별 행동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가천대 길병원 닥터헬기

mum

100000

mmmmm

HIRITION IN

100000000

암센터

HILLIAN I

11111111111

111111111

THEFT

기천대길병^원

통합적 휴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유아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사회복지학과

(Lean-Startup)기반

디자인 특성화 사업단

디자인전공

수학기반 맞춤형

금융미드필더 양성 사업단

금융수학학과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광역버스 통행시간 30% ↑ 단축땐 환승"

경기도민 47% 의사 밝혀

비효율적 노선・차내 혼잡 열악한 정류장등 불만 커

경기도민들 10명중 5명은 광역버 스 통행시간이 30% 이상 단축되면 환승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은 '대도시 권 교통문제, 허브앤스포크 시스템 을 활용하자'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 도권에서 약 17조4천억원의 막대한 혼잡비용이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문 제에 대한 해법으로 허브(환승거점) 를 통해 기종점을 연결하는 버스노 선 지간선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 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분 석한 결과, 평균 11개 노선이 하나 의 경로를 중복 운행하고 있으며 노 선굴곡으로 최단거리 대비 1.6배의 거리를 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버스운행 체계는 '서 비스 악화 → 적자노선 양산 → 이용 감소'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38.3%로, 서울시 60.4% 보다 낮으며, 이용자들은 차내 혼잡, 노선 굴곡, 열악한 정류장 대기 공간 등에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에 따라 버스 운행의 효율성 개선과 빠른 이동을 위해서는 환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완 대책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연이 도민 800명을 대 상으로 지난 10일 인터넷을 통해 조 사한 결과, 환승을 포함한 통행시간 이 약 30% 단축되면 절반 가까운 이 용자(47%)가 환승하는 경로를 이용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승정류장의 열악한 환경만 개선해도 환승 이용객은 67%로까 지 늘어나는 것이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광역버스 입 석 금지로 앉아서 갈 수 있는 거점 정류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민선6기 핵심 버 스 정책인 멀티환승터미널과 굿모 닝 버스 실현이 그 방안이 될 수 있 으며, '환승'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16일 오후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직개편 관련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도 조직개편안 원안대로 확정될 듯

남지사, 공무원 노조와 합의 입법예고 후 9월 임시회 제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북부 발전 공약 실현을 위해 경기노 남부정사에 있던 경제투자실 일부를 북부청사로 이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기도 조직개 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남 지사와 노조 관계자, 근무지 이 전 등의 이해가 얽힌 직원들이 간담 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 다. 조직개편안은 시작부터 도 공무 원노조의 반대 성명 발표 등으로 난 관에 봉착했었다.(경인일보 7월16일 자 2면 보도)

16일 오후 4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직 개편 관련 간담회에는 남 지사와 고 상범 노정 공무원노소위원상, 경제 투자실 · 평생교육국 등 5~6급 공무원 20명이 참석했다.

경제투자실 직원들은 경기남부지 역에 기업이 대다수 있는데다 민원고 객의 70~80%를 차지해 북부청으로 옮기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평생교육국 직원들은 지난 2009년 평생교육국이 북부청에

처음 생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 데 본청으로 내려오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등 육아 및 출퇴근 문 제 등의 해결 방안과 북부청 근무자 에게 별도의 인사 가점 등 혜택 부여 도 요구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북부 발 선을 위한 어썰 수 없는 소식개편이 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육아, 출퇴근 등 개인사정 등을 고려해 희망부서와 희망자를 신청받아 근무지 이전에 따

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를 거쳐 9월 16~25일 열리는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성·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국내 유치 나서

경기도가 서울시, 종교계와 공동으 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국내 유치에 나선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젊은이의 신앙을 독려 하기 위해 1984년과 1985년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전 세계 청년을 초대 한 일이 효시가 돼 1986년 제1회 대회 가 로마에서 열린 국제적 행사다.

도는 우선 2019년 가톨릭 세계청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천주 교 서울대교구・의정부교구, 서울・경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계와 함께 세계청년대회유치준비위원회를 구 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세계청년대 회 유치를 위해 국제무대와 각국 가톨 릭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새누리당 도지사 경 선후보였던 지난 5월 세계청년대회 유치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4월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천주교 서울대교 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세계청년

대회 국내 유치와 경기도-서울 공동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세계대회가 유치될 경우 개막 미사는 비무장지대(DMZ)에서, 폐 막미사는 서울에서 진행하고 참가자 들을 서울과 경기북부에 분산 배치한 다는 구상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이공명 g498mm@kyeongin.com





기업맞춤형

Edu-EcoSystem기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단

컴퓨터공학과 / 소프트웨어학과

바이오융합 인재양성 사업단

바이오나노학과/나노화학과/생명과학과 식품생물공학과/나노물리학과/약학과

바람개비

보건과학 사업단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

가천하와이교육원

원서접수: 9.13(토) ~ 9.18(목) 입시문의: 가천대학교 입학처 [1577-0067]

가천대학교

경인일보 제21282호 **종합**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3**

백령·강화·덕적도 국가지질공원 등재 추진

인천시, 오늘 타당성조사 중간발표

사곶해변 등 지질명소 33곳 학술적가치 입증 미흡 2016년 신청목표 추진위 구성··· 관광 활성화 기대

인천시가 백령도와 주변 섬, 강화도, 덕적도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등 재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시는 17일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 심포지엄'을 열

고 인천 서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한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층·지형 등 지질구조가 학술적으로 중요하고, 경 관이 뛰어난 지역을 보전하면서 교육·관광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백령권역'으로, 강화도와 덕적도를 비롯한 주변 섬들을 '강화·덕적권 역'으로 각각 나눠 등재를 추진하거 나, 이를 한데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령권역은 지질학적 가치가 큰 명소가 많다. 25억년 전인 선캄브리 아기때 형성된 시스택 지형(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진 굴뚝 형태의 지형)인 두무진, 세계에서 단 두 곳뿐인 천연비행장 사곶해변 등 시가 내세운 지질명소는 15곳에 달한다. 8개 섬들을 모은 강화·덕적권역도 세계 5대 갯벌가운데 하나인 강화갯벌, 장봉도 풀등(간조시 드러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서는 백령권역과 강화·덕적권역의 지질구조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입증

지질명소가 있다.

는 모래퇴적지형)을 포함해 18곳의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는 올 10월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 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가지 질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지질공원 등재 신청은 2016년을 목표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질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단 계적인 절차를 철저히 밟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인천 서해 안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이 되면 국 내·외 탐방객 증가 등으로 관광 활성 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지 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태종대 등), 강원도 DMZ, 경북 청 송(주왕산 일대) 등 모두 5개 지역이 등재됐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16 개 지역을 추가로 인증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유정복 시장 교육공약 이행"

인천시, 교육청과 머리맞대

실무협의체 구성 의견조율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교육분야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 천시교육청과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 진한다.

시는 16일 "최근 인천시교육청에 교육분야 공약이행 문제를 협의할 실 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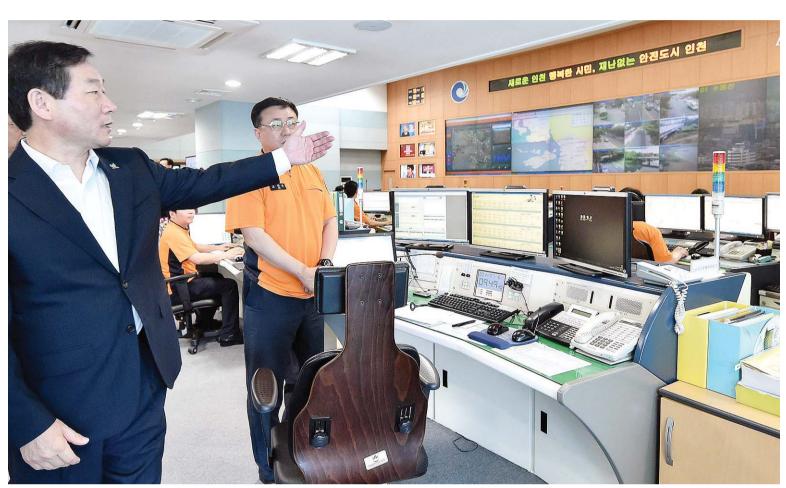
시는 유 시장의 교육분야 공약 대부분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시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초등학교 교육비부담 제로화를 비롯, 인천형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예체능 특기적성거점학교 설립 등 10여 가지의 교육분야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다.

시는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9월 중 시교육청과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유시장의 공약가 운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공약과 상충하는 부분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유 시장의 교육분야 공약 중 특 목고 원도심 유치, 국제학교(자사고) 설립 등이 이 교육감의 공약과 상충한 다고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임기 동 안 인천에 자율형 사립고의 추가 설립 은 없다"며 특목고와 자시고의 정신화 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현재 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등 사업을 재점검하고,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와 방식, 사업비 분담 규모 등을 논의하게 될 것"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119종합방재센터 찾은 유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오전 인천소방안전본부 119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전담 TF' 신설

시, 연말까지 용역내용 확정 중장기적 정책 비전 제시 하반기 진흥조례 제정도 추진

인천시가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 획 수립에 나선다. 인천시는 내달 중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 스(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팀 에는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인천발 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

TF팀은 올 연말까지 인천문화도 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용역 수행기 간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다.

시는 올 하반기에 (가칭) '인천시 문 화발전진흥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이다. 인천의 문 화 특성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인천 시의 계획이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는 지역문화실태 조사결과, 생활문화 육성방안, 문화전문인력양성방안, 인천고유문화육성방안, 신규 문화사업발굴결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은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서울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문화는 구도심 재생과 관광산 업 육성의 중요 소재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 서 "인천은 정체성이 부족한 것 같 다. 인천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주인 정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시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인천의다양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긍지를 느끼고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유정복 시장은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도 공약한 상태. 인천시는 군· 구 작은도서관에 운영비(3억6천만 원)와 순회사서(32명)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7억1천700만원을 들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수돗물 안정적공급" AG경기장 등 16곳 급수구역 새로 지정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도시와 새로 지은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들 을 포함한 16개 지역을 급수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급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도사 업본부가 직접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 급을 위해 관리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급수구역은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십정열우물경기장,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일대 등 16개 지역으로 총 33.52km에 달한다. 이 지역에는 모두 26만1천여명이 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공급 수 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도시와 인천아 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경기장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조치라 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 고갈로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강화도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특히 아시안게임때 경기장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 50명 규모로 10월 출범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시 장 직속 투자유치단이 오는 10월 출 범한다.

인천시는 50명 규모의 '투자유치 단'을 오는 10월중 구성할 계획이라 고 16일 밝혔다.

투자유치단에는 자산운용사, 부동산 개발 전문가, 금융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투자유치단은 인천의 투자유치 전

략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또 기존 조직인 투자유치담당 관실을 확대 개편해 투자유치단을 지 원할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할 계 획이다. 행정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두는 투자유치지원단은 기 획외자유치팀·융합산업유치팀·신성 장산업유치팀·서비스산업유치팀·입 지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투자유치 민관 협 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전문화된 투자유치 추진으로 부채 감축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4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종합** 제21282호 **경인일보**

김무성 "모든 결정 미루고 재보선 올인" 안철수 "수원서 먹고자며 주민 만날 것"

미니총선 오늘부터 공식선거전

새누리, 지역참일꾼론 앞세워 과반의석 사수 현장행보 주력

새정치, 초반 판세 불리 판단 경기지역 5곳 의원 집중 배치

여야는 7·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기 간을 하루 앞둔 16일 당을 '재보선 총력 체 제'로 전환했다. 여야는 이번 재보선이 끝나 면 다음 총선까지 특별한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정국 주도권 장악 여부가 걸려있다고 판단,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특 히 수원을·병·정, 평택을, 김포 등의 '경기 대첩'이 이번 재보선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 라는 분석속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새누리당 ='과반의석 사수'를 내걸고

재보선 권역별로 나눠

의원・당협위원장 지원

새누리 도당위원장 주관 연석회의

7·30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16일 선거대책회의의 일환으로 '7·30 재보

궐 선거 대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

회의'를 가졌다. 함진규 경기도당위원장 주

관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식 연석회의에

서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재보선 지역인

수원을(권선)・병(팔달)・정(영통)과 평택을,

김포 지역 등 5개 선거구를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책임을 지

고 선거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연석회의에는 의원 및 당협위원장

외에 수원병 보궐선거에 나선 김용남 후보

와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유의동 후보 등이

참석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평택 지역을 제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후보들 이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지역 토박이가 아

니거나 경기도와 상관없는 인물들이 대거 출마하게 된 것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며 "이번 재보선은 지역 새싹과 장사꾼과의 싸

움이지만, 새로운 정치 신예들이 대거 투입

된 만큼 네거티브가 아닌 미래형 선거운동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을 펼치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선거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7·30 재보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원내안정 괴반수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재보선까지는 모든 결정을 미루고 거기에 매달리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재보선 공천이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재보선 전략인 지역참일꾼론을 앞세워 국가적인 과제인 국가혁신을 이끌어가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몰아준 민심을 회복해 국정안정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한 것이 수도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는 특히 재보선 최대 접전지인 수원벨트 등이 포함된 경기지역 5개 선거구를 승부처로 보 고 본격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김포 재보선에 출마한 홍철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새정치민 주연합 김두관 후보를 겨냥해 "홍 후보는 김 포 주민이 선택한 후보로 이것이 바로 상향식 공천"이라며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는 지역 주민이 전혀 모른다. 이것이 하향식 공천"이라고 밝히는 등 '지역일꾼론'을 내세웠다. 이는 수원 3곳, 평택·김포 각각 1곳 등총 5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도에서 이같은 현장 행보를 통해 당력을 집중시켜 필승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새정치민주연합=재보선 분위기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속에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지역을 할당하는 '하방'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의원 개개인이 선거 현장에 뛰어들어 유권자들과 호흡하며 분위기 반전을 통해 재보선 승리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초반 판세가 녹록지 않은 경기지역에 의원들을 집중배치하며 '경기대첩'에 비상을 걸고 나섰다. 백혜련 후보의 수원을에는 담당에 유승희·간사에 남윤인순 의원, 손학규 후보의 수원병에는 담당에 양승조·

간사에 홍의락 의원, 박광온 후보의 수원정에는 담당에 신경민·간사에 유은혜의원등을 포함 각각 12명의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정장선 후보의 평택을은 담당에 김성곤·간사에 진선미의원, 김두관 후보의 김포에는 담당에 원혜영·간사에 윤후덕의원을 포함각 9명을 배치했다.

공동대표들도 현장에 뛰어든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에서 "나는 우선 동작과 수원지역에 상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때론 최고위원회 등 당 회의도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주민들과 만나겠다. 물론 평택, 김포도 수시로 가고 충청권도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에게 의원들과 당원들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백혜련·박광온· 손학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 수원 삼각벨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물러설수 없는 김무성·안철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야 지도부 담판 회동'에서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 懶地

의원연금 악성루머 우려 표명 국회 사무처 "사법조치" 대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6·25때 참전자들은 명예수당으로 월 8만 원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65세 이후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을 받는다"는 등의 주장이 돌아다니자 16일 국회가 대응 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이와 관련, "최근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 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 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 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 하는 자에게는 사법적인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온라인상 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 고 있으나, 국회는 지난 해 7월 '대한민국헌 정회 육성법'을 개정,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 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사법체계 흔든다" "진상규명 한계" 세월호특별법 여전히 수사권 논란

여야, 조사위 구성방식도 이견 단원고생 도보행진 국회 도착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담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월호특별법TF'여야간사인홍일표·전해철 의원은 이날 저녁에 만남을 갖고 협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합의가 이뤄질경우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원포인트'국회를 열어 특별법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판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박영선 원내대표 및 여야 간사가 참여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

사항들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회동은 1시간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회동 후 홍 의원은 "타결을 위해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간 핵심 쟁점은 세월 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진상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 는 반면,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 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 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과 유가족 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 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사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에 들어가려는 것을 경 찰이 저지하면서 큰 소란이 빚어졌다. 유가 족들과 경찰간 대치상황이 약 1시간가량 지 속됐고 부상자가 생겼다. 논란이 커지자 김 상철 영등포서장과 유진규 국회 경비대장이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 학생 30여명은 1박2일 도보행진 끝에 이날 오후 1 시45분께 국회 앞에 도착했다. 전날 오후 5 시 단원고를 출발한 이들은 광명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숙박한 뒤 이날 오전 9시 도보행진을 재개했다.

이들은 'Remember(기억하라) 0416', '보고 싶은 친구들아 사랑해', '얘들아 힘내' 등의 문구가 쓰인 노란 깃발과 피켓을 들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정성근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후보자 사퇴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직을 사퇴한다"며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 후보자가 국회 교육문 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 僧長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송곳검증 정교수 승진논문 4편 표절 밝혀

'김명수 낙마 결정타' 유은혜



박근혜 대통령이 16 일 김명수 사회부총 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을 철회한데는 새정 치민주연합 유은혜 (고양일산동·사진)

의원의 송곳같은 도덕성·자질 검증이 핵 심 역할을 했다는 게 당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여러 낙마 이유 중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논문 표절을 밝혀냈다.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 대 정교수 승진심사 때 제출한 논문 4편 모두가 다른 학자의 저술을 베껴썼다는 것 이다. 유 의원은 "타 학교 대학원생의 석 사학위 논문까지 표절해 작성했다는 점에 서 권위와 양심을 동시에 내던졌다"며 "인사청문 요청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 는 만큼 지명을 철회한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초선의 유 의원은 '교육 일념'으로 19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원회에 몸을 담았다. 부드러운 외모와는 달리 '행사 사회자 섭외 1순위'에 오를만 큼 강단있는 언행으로 '철의 여인'으로 통 한다. 원내대변인을 맡아 원내·당 회의 참석·브리핑 등의 바쁜 와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주도했다. 유 의원은 "논문검증은 무엇보다 시간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청문회 기간 2주동안 보좌관들과 의원회관에서 거의 숙식하다시피 했다"고

유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볼때 장관을 맡으실 분은 아니었다" 며 "노학자로서 학교에서 제자들과 노후를 보내는 게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충분히 검증가능한 부분인데도 그러지 못했다. 인사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한 사람의삶이 엉망이 됐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17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교문위는 또다시 2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유 의원은 "현 문광부장관이 그대로 유임됐 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면서도 "고 (故) 노무현정부 시절 박 대통령 주도하에 당시 한나라당이 도입한 인사청문회인만 큼 이번에는 사전 검증절차를 제대로 진 행,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 com

박 대통령, 총기사고 재발방지대책 주문

軍주요지휘관 140명 靑오찬 北 도발시 군 대비태세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변화된 젊은이들의 눈높이와 살아온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복무 환경의 개선을 이뤄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전군 주요 지휘관 14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최근 동부전선의 GOP 총기사고 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각 군 지휘관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군의 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나오고 있다"며 "젊음을 희생하면서 고귀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젊은 병사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상황과 관련,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연이어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다"며 "또한 4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국제사회의 우려도 매우 크다. 우리 안보태세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전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회의를 통해 전반기 국방 태세를 논의함과 동시에 대통령님의 통수지 침을 구현하기 위해 결의를 함께 했다"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들과 관련해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우려와 불신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군의 현실을 냉철히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인정가

교육시설 재해예방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생수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16일 교육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 복구 및 예방 차원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시·도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등 타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재해 관련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시켰다.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 며, 특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재해예방 에 최우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해 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연구·공부하는 의회로 市상생 노력



민선 의정에 길을 묻다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충실 동반자적 입장 선순환 발전

제6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으 로 선출된 유광철 의장은 "그동안 깊 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안 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고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시민 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 행, 보다 나은 안성을 만드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와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유 의 장을 만나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제6대 안성시의회가 대부분 초 선이어서 의정활동 경험부족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집행부와 관계 정립 방안은.

"대부분 의원들이 초선인 점은 사

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정 시장은 지난 15일 용인도시공사

한 위기 극복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

를 위해 여러가지 법적 지위와 권한

실이지만 각 의원들이 자신의 분야 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크 게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각각 독립기관으로 의회의 사명과 책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 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정이 올바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또한 모 든 정책 결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협력은.

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견을 듣고 판단하여 시민들이 걱정

하는 일이 없도록 동료 의원들과 역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역할은 다 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시민 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수레 의 양 바퀴처럼 집행부와 협력을 바 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 립과 견제만으로는 상생할 수 없다.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갈등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생 과 협력 그리고 의회의 본연의 기능 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 혜택은 분 명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

—제6대 안성시의회 위상 강화에 대한 방안은.

"시의회 위상강화는 결국 의회 역 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시민 의 참뜻을 알고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연구하고 공 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 분, 제6대 안성시의회에서는 한순간 도 헛됨이 없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시민 앞에 더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시 의회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안성/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



2개 사업소 폐지 4개과 신설

포천시, 조직개편 추진

포천시는 현행 2개 사업소를 없애고 4개과를 신설하는 행정조직 개편안 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포천시 행정기구 중 사업소는 모두 폐지되고 과는 19 개에서 23개로 세분화된다.

사라지는 사업소는 서울사무소와 도서관사무소로, 서울사무소는 총무 국에 업무가 이관되고 도서관사업소 는 평생학습 기능을 보강해 평생학습

센터로 변경된다. 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생활지원 국이 경제복지국으로 명칭이 바뀌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 2개과 체제에서 시민복지과, 가족여성과, 노 인장애과 3개과 체제로 확대된다. 반면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와 청소자원 과로 분리돼 환경정책 확대를 반영한 다. 한탄강개발기획단은 행복도시건설 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략사업과'와 '관광사업과'를 두게 된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부평구 물놀이 사고 대비

름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와 기관을 찾아가는 안전

구는 16일 부원중학교에서 이 학 교 2~3학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물 놀이 생활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학교와 기관 16곳을

찾아간다. 이번 안전체험 교실에서 는 여름철을 맞아 늘어나는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기고 유사시 적절한 대처 를 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법과 한다. 교육은 사회복지시설과 초·중 학교, 노인인력개발센터 등지에서 학생과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생활민 방위 안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양교도소 이전 TF팀 설치 대안 마련"

이필운 시장 조찬간담회

이필운 안양시장이 민선6기 시정운 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양시는 지난 15일 이 시장이 안 양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 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조찬간담회에는 관내 기업 인 및 기관장, 시민 등 250여명이 참 석했으며 계획안에는 재정자립도 하 락 및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과 개발가능한 토지 부족의 대안 등이 담겼다.

이 시장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개 발가능 토지 부족 등 안양시의 어려 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 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안심하

고살수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안양, 깨끗한 행정으로 더 행복한 시민, 시 민맞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 5개 분야로 나눠 민선 6기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풍요롭고 행복한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자 원을 활용한 경쟁력 높은 도시 건설,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기업하기 좋 은 도시 환경 조성, 규제개혁 등을 실 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 밖에 안양교도소 이전, 국철지하화 사업,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신설 등 오래된 난제에 대해서는 "주민 및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TF팀 을 설치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약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황진하 의원 농어촌공사 방문 장마철 점검

황진하(새누리당·파주을) 국회의원 은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 사를 찾아 장마철 대비태세를 점검했 다. 황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농어촌공 사 파주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마지 및 애룡 저수지를 찾아 긴 가뭄에 따 른 한해 대책과 장마철 수해 대비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 실 태, 농업용수 공급 현황 등을 확인하 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황 의원은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 폭우가 쏟아질 지 모른 다"며 "집중 호우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에 대해 장영우 한국농어촌 공사 파주지사장은 "한•수해 등 재해 에 대비해 공사현장과 시설물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 통제를 통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지난 4월부터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가 수내천 수중펌프 설치를 비롯 해 관정 10개소 가동 및 신규 개발, 공덕양수장 유입수로의 퇴적토 준설,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으로 추진중인 장산양수장의 조기 가동, 통일대교 남단에 간이양수장 설치 등 선제적 한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황진하 의원은 농어촌공사에 이 어 적성 임진강에서 행락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찾아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연도교 건설 의견청취 중구의회 첫 현장활동

제7대 인천 중구의회(의장・임관만)는 최근 잠진도~무의도 연도교 건설현장 을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첫 현장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중구의회 의원 들은 연도교 건설공사에 대한 인천경 제자유구역청의 설명을 들었다. 경제 청은 기존 도로와 연도교를 연결하려 면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무의 도 큰무리 선착장 왼쪽 7천975㎡ 규 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구의회와 주민들의 적극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잠진도~ 무의도 연도교 건설현장을 방문, 관계자 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는 집행부 및 주민 의견을 모아 경제 청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고, 주민 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합리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정찬민 시장 기자 간담회 "낡은 제도에 행정 어려움" 안전 등 5개분야 전략발표 정찬민 용인시장이 "용인시를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게 특례시로 지정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질의응답에서

나온 용인도시공사 공단 전환과 관련

"인구 100만 용인 특례시 지정을"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15일 용인도시공사 회의실에서 민선 6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회의실에서 민선 6기 출범 이후 처음 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으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 이 밝혔다. 이는 시가 당면한 난제들 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 시장은 처인 구의 도농복합 기능과 기흥・수지구 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으 의 첨단주거 및 미래산업 육성 기능 로, 정 시장은 "100만명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 난제 을 융합하는 창조 행정, 사람 중심 도 시설계, 시빈이 수인인 노시 소성, 용 다"고 강조했다. 인시민 재능 모으기 운동 전개, 시민 정 시장은 "현재 97만 인구를 가진 참여 용인지심(龍仁之心) 행정을 시 용인시는 인구 50만 도시 수준의 획 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뒤 도시안전 · 경제 · 복지 · 교육문화 · 자치 일적인 제도 속에서 행정 및 재정 운 용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조속 행정 등 5개 분야 발전 전략과 14개

해서 정 시장은 "현재로서는 도시공 사 조직의 슬림화를 우선 추진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추후 공단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역북도시개발사 업과 관련해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이 개선되는 현 시점에서 우선 토지 매각에 최선 을 다할 것이며 향후 대기업 공동 출 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언제나 귀를 열 고 언론인들의 고견과 비판, 건설적 대안을 경청하겠다"며 1시간여동안 진행된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 yeongin. 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2571호

ana 라이나생명 "对学生活到处情" 到3世代X10년 = 3046对地型

당신이 떠나도 "월 300만원씩 10년간" 라이나가 가족을 챙기겠습니다

*남 40세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3억원. 최초계약 5년만기 *가입금액 3억원의 경우. 최대 가입 나이는 50세이며 51세 이후부터는 가입금액이 이보다 적습니다

-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인한 각종 사망에 대해 보장!
-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
- ◎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이라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 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보험료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40세 남자)				
가입나이	가입금액	남자	여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5세	3억원	45,000원	30,000원	1년	720,000원	0원	0.0%	
40세	3억원	60,000원	39,000원	3년	2,160,000원	0원	0.0%	
45세	3억원	93,000원	48,000원	5년	3,600,000원	0원	0.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3억원, 최초계약, 5년 만기, 전기월납,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 가입 후 1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 보장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보장 제외
- 라마기족사라플랜드현 (Jude)

-5년 만기 후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24시간 면로 생하기 2 0 8 0 - 2 2 0 - 0 0 0 3

종합 제21282호 **경인일보**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인천시 계양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교통망 이 발달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 이 살고 있는 베드타운이고, 전체 면적의 55 %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인천지역 지자체 중 재정자 립도가 가장 낮다. 이 때문에 베드타운 이미 지를 불식시키고, 서운산업단지 조성과 경 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등 신규 성장 동 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베드타운 이미지 탈피 재정자립도 높이고, 新성장동력 발굴 혼신



이 공약 반드시 지킨다



계양산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인터뷰 / 계양구청장

A-2019 Oglych



약력

- ▶ 인천 계양구 출생
- ▶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졸업 ▶ 민선 2·3대 인천시의원
- ▶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 ▶ 민선 5대 계양구청장

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서운산업단지 조 각이다.

그는 "서운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1조3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개발 서운산단 조성 '행정력 집중'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누빌것

절차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6년에 기반 시설 등이 순공될 수 있노록 모는 행성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경인아라뱃길 전체 19km 중 8km가 계양구를 흐르고 있지만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처럼 터미널이나 관광 자원이 없기 때 문에 지역발전 기여도는 미미한 실정"이라

며 "경인아라뱃길과 계양역·귤현역을 연결 하고, 계양산과 아라뱃길을 잇는 녹지네트 워크를 만드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 로 친수구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했다.

계양구는 2012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 됐다. 박 구청장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 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교육국제화 특 구로 지정됐지만 박물관이 하나도 없을 정도 "계양산성 복원과 함께 박물관을 건립해 학 생들이 계양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만 들겠다"고 했다. 이어 "계양구에 있는 경인 교대, 경인여대와 연계한 교육 사업도 다양 하게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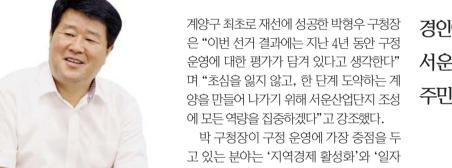
그가 생각하는 구청장의 가장 큰 덕목은

박 구청장은 "취임 첫 해, 1년 동안 접수 된 민원이 1만9천 건이었지만 지금은 절반정 도로 줄어들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 해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이 게으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며 "부지런하고,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는 행 정을 통해 주민들과 대화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

임 구청장이라는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 을 주셨다"며 "지난 4년이 계양의 새로운 도 약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앞으 로의 4년은 이를 구체화해 교육・문화・복지・ 지역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변화 하는 계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www.tbroad.com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천8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천42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운산업단지는 계양의 동력 사 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앙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행정적

'소통'이다.



월 1,000원이면 우리집 TV가 스마트 TV로 변신합니다.

스마트TV의 스마트한 기능

- · 음성인식 & 모션포인팅 리모콘
- · TV속 인터넷 검색
- · 다양한 TV앱
- · TV속 SNS

(1) 1877-7000 NAVER







종합 경인일보 제21282호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섬마다 현안 제각각 현장중심 행정 주민더 나은 삶 선물



인천시 옹진군은 전체 인구가 2만명을 조금 웃도는 크고 작은 섬마을로 이뤄졌다. 옹진군 은 여느 농・어촌처럼 조용하고 평온한 듯 보 여도 국가적 차원의 굵직한 현안들이 얽히고 설킨 특수지역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에 인접한 최북단 접경지역인 서해 5도는 백 령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 의 군사적 도발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게다 가 중국어선들은 이런 남북간 대치 상황을 악 용해 NLL 인근 해상에서 쌍끌이 불법 조업 을 일삼으며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조윤길(64·새누리당) 옹진군수는 앞서 재 선에 도전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 해 인천 최초 무투표 당선으로 관심을 끌기 도 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3선 고지 에 오른 인천 기초단체장이란 수식어까지 갖 게 됐다.

이 공약 반드시 지킨다

맞춤형 마을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성정지역 상품 브랜드화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여객선 교통망 확충 등 안전한 정주기반 확충



88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인터뷰 / 옹진군수

먼저 조 군수에게 3선에 성공한 비결을 물어 봤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이나 정치 나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조 군수는 "주민 을 부모 형제처럼 감싸고, 제가 생각하는 바 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기 회를 다시 주실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중심의 행정을 강조해 왔다. 옹진군은 섬으 요. 어느 덕적도 주민이 이런 자리에서 사귄 로만 이뤄져 있어 현장을 모르고는 행정을 대청도 친구에게 홍어철이면 실한 놈으로 한 하기 어렵다는 확고한 지론 때문이다. 요즘 마리 보내주라 하면서 잘 지낸다던데, 이 정 은 멀디먼 섬마을 그 어디에 또 어떠한 현안 도면 꽤 괜찮은 변화가 아닙니까."(웃음) 이 불거졌을까 궁금했다. 그에게서 다소 의

지역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 낼 무언가가 필요한데…." 같은 옹진군에 속 해 있어도 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주민 들의 정서도 다르다는 얘기였다. 이를테면 최북단 백령도는 불편한 교통이, 연평도는 중국어선 꽃게 불법 조업 피해가, 덕적도는 주민들의 마땅한 먹거리가 없는 것이 현안으 로 꼽히는 것처럼 말이다. "자원봉사자 워크

외의 답이 돌아왔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연평도 포격사건

과도한 여객선 화물통제 답답 섬지역 열악한 실정 배려안해 노후 어업지도선 국비확보온힘

조 군수는 직원들에게 늘 발로 뛰는 현장 숍 등 주민들이 만날 기회를 자주 마련했어 등으로 큰 시련을 겪었던 터라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유일한 교통편인 여객선을 이용 하는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니 더 남의 일 같 지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옹진군 주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조 군수에게 세월호 참사는 더욱 크게 와 의 갑작스러운 여객선 화물 선적 통제로 생 활필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군 다."

수는 "해경 등 당국이 선박 안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다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결국 과도한 통제로만 이어지 고 있다"며 "섬 사람들의 열악한 삶에 대해 서도 한번쯤은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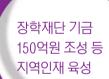
조 군수는 끝으로 중앙부처 공직사회를 향해서노 쓴소리를 했나. "서해 5노 중국어 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어업지도선 중에는 낡고 낡아서 물까지 새는 것도 있어 요. 그런데도 정부에 요청하는 국비가 번번 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소위 엘 리트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고 또 관심도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시

- ▶ 옹진군 백령면 출생
- ▶ 경기수산고등학교 졸업(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
- ▶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근무 등
- ▶ 인천시 공보관·자치행정국장
- ▶ 민선 4·5대 옹진군수

명품 관광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과빠른 위장약! 신일겔 정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당신의 위장!! 힘들어하는 당신의 위장을 위하여, 신일겔 정을 권해 드립니다.

소화불량

효과빠른 위장약

"간편하고 경제적인 신포장(240정)이 발매되었습니다."



www.sinilpharm.com Tel 2211.6700

광고심의필: 1039-0101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1. 빠르고 효과적인 제산 작용 4종의 제산성분이 함유되어 빠르고 효과적으로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2.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 과도한 위산 분비에 따른 소화불량 · 속쓰림 · 위통에 신속하게 작용합니다.



지자체 中企융자기준 '들쑥날쑥'

'금융 조례' 애매한 지원기준·투명성 결여 논란 선정업체 사후관리 나몰라라… 혈세낭비 우려

경인지역 지자체들의 중소기업 금융 이자 지원 사업이 일부업체에 한정, 생색내기성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 운데(경인일보 7월 16일자 1·8면보 도) 지자체들마다 애매모호하고 제각 각인 지원 기준에다 사후 관리는 사 실상 손을 놓고 있어 혈세낭비 우려 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16일 경인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 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조 례'를 제정하고 이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

지자체들은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애매한 기준으로 지원 사업의 투명성 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 들에 재무제표와 수출실적 등의 자료 를 제출토록 하지만 이는 은행에서 '건실도'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될 뿐 나머지 선정 기준들은 대부분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표현들이다.

실제로 안산・화성・안성시 등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기업'을, 평택시는 '국 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 하는 기업'을 하나의 기준으로 내걸 고 있다. 또한 연속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도 제각각이다.

수원시의 경우 '대출금 상환 이후 2년이내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시흥 시는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원받은 기 업', 안양시는 '3회 연속 지원'을 제 한하는 등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하고 아예 제한 규정 없이 연속적인 지원 이 가능한 지자체도 화성시, 군포시, 광명시 등 10여곳에 달한다.

게다가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폐업하거나 타지역으 로의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자진해서 시나 금융기관 측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시가 '사후 확인을 통해 부적 격자에 대한 이자보전을 중단'한다고

명시하는 등 소수의 지자체들만이 '사후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응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사후 관 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제 시하고 있을 뿐 정기적인 실태점검 횟수와 시행 여부 등을 구체화한 곳 은 전무하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도 이미 지원받 은 대출금을 상환한 뒤 신청해야 한 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지원 제한이 나 실태점검 규정이 없다.

이와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 출액,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인증, 창 업보육센터 입주 등 여러가지 기준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한다"며 "지 원 제외 또는 금지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 했다. /김영준·김영래·신선미기자 ssunmi @kyeongin.com



어린이 수박 빨리먹기대회

1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어린이 수박 빨리먹기 대회' 가 열리고 있다.

서민금융 창구단일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상품 명칭 '햇살론' 통합

앞으로는 서민금융 관련 지원을 하나 의 창구에서 받게 돼 서민들의 혼란 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기구를 통합한 '서민금 융진흥원'이 설립되고, 서민금융 상 품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 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 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의 채무자 등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 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방문해야 했 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창구에서 모 든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 을수있다.

개인 대상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 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은 '햇살 론'으로 명칭이 일원화돼 혼란도 줄 어든다.

이 밖에도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통합 거점센터'가 단계적으로 25~ 30개 구축돼 서민금융 상품은 물론 자활 지원, 미래 대비 상담도 받을 수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이력관리 필요"

道·한은·중기청 세미나서 "자금 배분 기관공조를"

경기지역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과 지원 기업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 기지방중소기업청이 16일 경기중기 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지역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의 현황 및 발전과제 세미나'에서 각 기관들은 정책자금 지원으로 기 업들의 자금사정은 개선되고 있지 만 적절한 자금 배분과 중복 지원 관 리 등을 위한 기관들의 공조가 시급 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1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3천억원 한도 중 7천331억원, 한 국은행 경기본부는 7천억원을 지원 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 지역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8천535 억원을 집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재성 중소기 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신현길 한국 은행 경기본부 과장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119개의 기업 중 작년 대비 올해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응답 한 기업은 31.71%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의 효과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기 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조정기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 원은 "정책자금의 이력관리에 충실 해야 하고 성과 분석과 중복지원 관 리를 통해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향 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수 한국은행 경기본부 업무 팀장도 "자금 배분의 적정성 차원 에서 특정 기업이 중복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 다"며 "자금 지원에 대한 목표설정 이 명확해야 하고 특히 전략산업 중 심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신용등급 이 낮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집 중적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수원지역 중기 56.7% "여름휴가비 안준다"

수원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직 원들에게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 을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상공회의소가 수원지역 5인 이상 제조업체 112개사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 과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

라고 응답한 업체는 56.7%로 전년 대비 15.2%p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가비 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8.3% 로 전년도 53.8%보다 15.5%p 감소 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40.0%에서 51.7%로 11.7%p 늘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와 유럽 발 금융위기, 세월호 사고 등 국내・ 외적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기 업들의 재정 압박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체 기업 중 80%는 하계 휴 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국토부 행복주택사업 '본궤도'

2만6천세대 연내 사업승인

경기 1만세대로 '최대 수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사업이 올 해 본격 궤도에 올라 2016년이면 첫 선을 보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행복주 택 2만6천가구가 올해안에 사업승인 을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중 경기도에는 1만세대가 건설 돼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혔고, 서울 과 인천에 각각 4천9세대, 2천280세 대가 들어서 수도권에만 1만6천세대 가 세워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파주운정(운정역 인 근)과 김포한강(김포경전철 인근)에 각각 1천500세대가, 과천지식정보 (인덕원역 인근) 1천470세대, 하남미 사(미사역, 덕소역, 외곽순환고속도 로 인근) 1천450세대가 예정돼 있다.

위례신도시(마천역 인근) 860세 대, 고양삼송(원흥역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인근) 830세대, 의정부 민 락2지구(BRT승강장 인근) 810세대, 화성동탄2신도시(KTX동탄역 인근) 750세대, 오산세교(세마역 인근) 720세대 등도 단지가 크다.

43번과 87번 국도 인근 포천 미니 복합도시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360 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 행자로 나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포 천시가 직접 시행사로 나선다.

포천시는 정책에 따라 건설자금 이 자를 1%로 낮춰 대출을 받게 되고 360세대 입주자 선정권한도 대폭 위 임받는다. 고양삼송의 830세대는 올 해 착공될 예정으로 여타 지역의 행 복주택보다 입주가 빠를 것으로 예상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1억600만병' 상반기 맥주 수입량 사상 최대치 신기록

올해 상반기 맥주 수입량이 사상 최 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정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의 맥주 수입량은 5만3천618 t 으로 지난해 상반기 4만1천495 t 보 다 29.2% 늘어났다.

1억600만병(500ml 1병 기준)에 달 하는 규모다.

지난 2000년 상반기 맥주 수입량 이 3천444t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

면 10여년새 15배 이상 늘어난 셈이 다. 특히 맥주 수출량(5만3천451t)이 선년 같은기간 대비 0%대 성상률을 기록한 반면 수입량이 처음으로 수 출량을 넘어섰다.

수입금액 역시 올해 상반기 5천78 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954 만달러)보다 28.5% 증가하며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통상 날씨가 더운 7~8월 맥주 수

입량이 연중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 면 올해 맥주 수입금액은 1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아사히 · 삿포로 등 일 본 맥주(1만3천818t)가 가장 많았고 하이네켄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8천887t), 독일(7천825t), 중국 (5천67t), 미국(4천214t) 순으로 나 타났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이 늘면서 외 국에서 맛본 맥주에 대한 수요가 늘 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맥주 소비가 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경제·인천 경인일보 제21282호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전국 소상공인 인천서 첫 만남

시장상인등 25일 교류의장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논의

AG성공개최 역할 모색도

전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음으 로 한자리에 모인다. 지하상가 상인,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주인, 전통시 장 상인 등 각자의 입장과 지역이 다 르기 때문에 모이기 어려웠던 전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음으로 인천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인천에서 열 리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 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 는 시간도 갖는다.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이하 협 회)는 오는 25일 '전국소기업소상공 인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대회'를 인 천 로얄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 혔다. 그 동안 각 지역 차원에서의 모 임은 있었지만, 전국 단위 모임은 이 번이 처음이다. 참가인원은 각 지역 협회의 임원진 등 200명을 웃돌 것으 로 예상된다.

협회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소기 업·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 기로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면 소기 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또한 2014인천아시안 게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 라의 대외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인천아 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전국의 소기업소상공 인에게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홍보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때문에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 원회 등을 방문하는 내용이 프로그램 에 포함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처음 치러지는 것이다 보니 논의가 깊이있 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하 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교 류가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 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들도 국 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시안게임의 성 공개최를 바라고 있다"며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소기 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선진국에 이머징 마켓까지 진출 셀트리온, 터키 램시마 판매허가

셀트리온이 터키 의약품 허가기관인 보건부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램시마' 제품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터키 보건부는 류머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궤양성대장 염, 건선, 건선성 관절염 등 램시마 판매를 허가했다고 셀트리온은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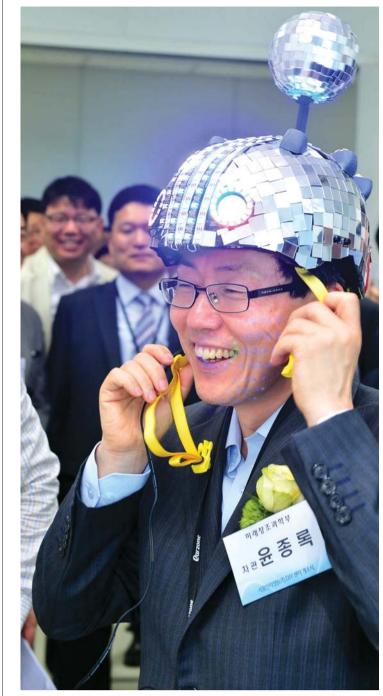
셀트리온은 올해 4분기부터는 터

로기대하고 있다. 터키에서 램시마를 판매하게 되는 파트너사는 터키 상위권 제약회사인 MN제약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램시마는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선진 국 시장과 더불어 이머징 마켓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환사에게 선신의약품을 사용할 에 대해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머징 마켓 진출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4일에는 일 본 의약품 허가기관인 후생노동성으 키에서 램시마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 로부터 램시마의 제품판매 허가를 받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도사무소에서 열린 '사물인터넷 (IoT) DIY(Do It Yourself) 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이 스마트 신제품인 '셀프 클럽'을 살펴보고 있다. '셀프 클럽(Self Club)'은 사용 자가 음악과 불빛이 나오는 헬멧을 쓰면 유흥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스마트 기기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내 손으로 만드는 스마트기기

전국 첫 사물인터넷 DIY센터 송도 개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전국에서 처 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기기를 직접 제작할 수 있 는 '사물인터넷 DIY 센터'가 문을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정보통 신산업진흥원 송도사무소에서 센

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에서는 시민 누구나 평소 사 용하는 각종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 결하는 스마트기기를 개발하고, 제 작까지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물인 터넷 스마트기기의 사례로는 포크 에 센서를 부착해 식습관을 파악하

는 제품 등이 있다.

시민들은 아이디어 발굴, 실제 구 현, 시제품 제작, 개발 완료 후 제품 화,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센터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품 개발 이나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은 센터에서 지원한다.

미래부 윤송독 자관은 "IoT DIY 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꿈을 실현하고, 시장 진출 에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 중소기 업이 IoT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인천공항, 이번주말 '최대인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을 이용 하는 해외여행객이 최다 기록을 경신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올 하계성수기(7월 19일~8월 17일) 공항이용객을 지난해보다 4% 증가 한 414만여명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 기간 인천공항 일평균 이 용객은 13만8천237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8월 3일에는 약 15만명 이상 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공 항의 역대 최대여객 기록은 지난해 8 월 4일의 14만7천668명이다.

공항 혼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국제선 출국여객 수는 여름 휴가 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마지 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일평균 7 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년보다 많은 이용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30일간을 특별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공항 혼잡완화와 비상상



해외여행객 하루 13만명 북적 특별대책기간 지정 비상근무 주차장 확보・심야 버스 운행

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별근무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또 공항 혼잡에 대비해 국제선 체

크인카운터 18개를 증설해 운영 준비 를 마쳤으며, 보안검색 공간을 확장 하고 보안검색대 6대를 추가로 배치 했다. 여객이 집중되는 오는 25일부 터 8월 10일까지는 일부 출국장의 보 안검색 운영시간을 평시보다 30분 앞 당겨 운영한다.

여기에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공 항 인근 도로에 교통통제 안내원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외곽주차장을 추가 개방하는 등 터미널 안팎에 7천 여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 원 활한 주차장 이용이 이뤄지게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야시간대 입국 승객을 위해 일부 서울행 버스 노선의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매일 오전 3시 50 분까지 공항과 서울역, 영등포역, 강 남버스터미널 등 서울 도심을 연결하 는 심야버스를 일 4회 운행한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공항철도 개통 7년만에 2억명 돌파

공항철도 이용객이 개통 7년만에 2억 명을 돌파했다.

공항철도는 지난 2007년 3월 23일 개통후 7년4개월만인 15일 오후 누적 이용객이 2억1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 이 1인당 4번씩 공항철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이용객은 개통 첫 해인 2007년 일평균 1만3천212명에 불과 했으나 2010년 12월 29일 전구간(서 울역~인천공항역) 개통 이후 이용객 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1월 부터 7월15일까지 집계된 일평균 이

용객은 개통시기의 10배를 넘어선 17 만1천669명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공항철도 심혁윤 사장은 "공항연계철도와 노선주변 관광명 소를 연계한 관광철도, 빠른 속도와 6개 환승역을 통한 공항철도의 차별 화 등을 적극 홍보하고 마케팅에 활 용한 것이 누적이용객 2억명 달성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Ⅰ 인천경제 브리핑 Ⅰ

유럽시장 개척단 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인천 남동구는 남동구 관내 중소기 업의 유럽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활 성화를 꾀할 시장개척단을 파견키로 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시장개 척단은 오는 11월 2~1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크로아티아(자그레 브), 핀란드(헬싱키) 지역에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바이어와 만나 수출 가능성도 타진하게 된다. 시장개척 단에는 해외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 굴 및 알선, 차량 임차, 통역 지원, 항공료 50%(업체별 출장자 1인에 한 함)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 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 kr)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남동구 기업 지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032-450-0534 또는 032-450-1138)나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51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청보산업,美 차부품 납품계약

인천시 남동구 소재 청보산업이 미국 보그워너 모스텍사(Borg Warner Morse TEC)와 30억7천144만4천758 원 규모의 자동차 엔진 부품(BODY-TENSIONER-MACHINED FORD)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 나. 이는 죄근 매줄액 247억3전933반 9천343원의 12.42%에 해당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청보산업은 해당 부품을 2020년까지 공급하게 됐다.

청보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등의 사업을 하는 미국 보 그워너사 유럽공장에 엔진 부품을 납 품하고 있었고, 이번 계약으로 미국

공장에까지 납품하게 됐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GSI, SKT에 중계기 공급

인천시 남구 소재 지에스인스트루가 SK텔레콤과 112억7천815만7천원 규 모의 중계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547억4천950만9천922원의 20.6%에 해당한다. 지에스인스트루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중계기는 LTE서비 스용 광중계기 마이보스(MIBOS) 10 여송으로 불량은 3전500여개나, 오 는 12월31일까지 해당 물량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에스인스트루 관계자는 "SK텔 레콤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 환 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계기 물량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1층, 2층 구조 선택 가능)

매매 문의

청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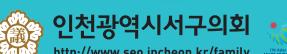
토지 + 주택 + 정원 + 텃밭 + 테라스 = ## ** * 40여세대 마감임박 현장방문 서둘러 주세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 131번길 72-2(구 영흥면 내리 1015-30번지)



제7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66 선진의정을 구현하여 구민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으로 글로벌 브랜드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교촌은 이번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기업

이념인 정도경영과 투

명경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고객가치 향상 에 최선을 다한다는

수원가톨릭대 총장에 유희석 신부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이용 훈)는 16일 유희석(안드레아• 54·사진) 신부를 수원가톨릭대 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선임했 다고 밝혔다.

유 신임 총장은 1993년에 사 제서품을 받아 5년간 본당 사제

로 활동했다. 1998년 이탈리아 우르바노대학에 입학 해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8년부터 수원가톨 릭대학교 교수로 재직해 왔다. 한국사회 사제의 사목 활동이라는 연구주제를 천착해 온 그는 '그리스도교 인간 이해(공동저서)' 등을 저술했다.

유 총장 취임 미사는 다음달 18일 오후 3시에 수원 가톨릭 대학교 대성당에서 개강식과 함께 열린다.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경기경찰청, 협력단체 방범간담회

경기지방경찰청(청장·최동해)은 16일 경기청 5층 대 강당에서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시민경찰・어 머니폴리스•학부모폴리스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국민안전 강화 및 4대악 근절을 위한 2014년 경찰 협력단체 방범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소 치안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정정숙씨 등 42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비롯해 협력방범 활성화 방안, 4대악 근절 추진사항 보고 등을 진행했다.

최 청장은 "열악한 치안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경 찰이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경찰협 력단체의 지역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와 조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윤수경기자 yoon@kyeongin.com

하남시, 구직희망자 일일취업특강 호응

하남시가 사전신청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부터 18일까지 시청 상황실과 하남경영고등학교 교육 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층별 일일취업특강'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특강은 고령자, 하남경영고등학교 3학년, 결 혼이주여성 등 5개 계층 사전 신청 구직 희망자 170명 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취업역량 강화, 이력서와 자 기소개서 건설팅 과성으로 신행되고 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자리 옮겼습니다

◇과장 인사 △해외언론담당관 조성관 △재외공관담당관 강형식 △외교사절 담당관 조기중 △동북아1과장 오진희 △서남아태평 양과장 김동배 △아세안협력과장 정의혜 △중남미협 력과장 고문희 △중유럽과장 서빈 △인권사회과장 이 경아 △국제안보과장 이철 △조약과장 한승호 △영토 해양과장 정광용 △재외동포과장 정강 △북핵정책과 장 최희덕 △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배병수 △국 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 박선태

◇상임위원 임용 △중앙행정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소기홍 ◇고위공무원 전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우경종 △기획조정실장 김인수 △권익개선정책국장 이충호 △행정심판국장 황해봉 △고충민원심의관 신근호

금융결제원

◇승진 △전무이사 신동원 △상무

이사 김영준

문화일보

◇편집국 △전국부장 한강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현택(중앙일보 기자)씨 부친상=16일 오후 3시 57분. 빈소:목동성당 장례식장. 발인:18일 오전. (02)2648 - 6649

본사손님

▲이태영(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씨=인사

연금복권 520 <제159회> 추첨일: 2014년 7월 16일								! 16일
1등	월 500만원	2 조	7	7	8	3	7	9
18	×20년	6 조	2	0	1	6	4	0
2등	1억원			1등의				
3등	1,000만원	각조	4	7	6	2	4	4
4등	100만원	각조		2	3	6	2	5
5등	2만원	각조				9	7	5
6등	2,000원	가지					8	7
00	2,000결	コエ					0	2
7등	1,000원	각조						7

'생활고' 절도범가족 도운 경찰

휴일반납 市 생계비 혜택 받게 해 평택署 김준환 형사, 남다른 선행

20대 절도범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딱한 사정을 알 게 된 형사의 도움으로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보장 되게 됐다.

평택경찰서 김준환(29·사진) 형사는 최근 생활고 를 못 이겨 지나가던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났 다 경찰에 붙잡힌 박모(26)씨를 조사하던 중 박씨가 임신중독에 걸린 아내와 장애를 가진 아이 등 2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충동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 게 됐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보다 가족들 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박씨의 부인은 임신중독 증상으로 치료 를 계속 받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 중 1명도 심장 발달 미숙아로 태어나 현재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다.



이에 김 형사는 박씨의 가족에게 도 움을 주고자 휴일도 반납한 채 복지제도 등 관련 법률을 검 토하면서 행정기관 들을 쫓아다닌 끝에 평택시의 도움을 받 아 기초수급 신청은 물론 월 80만원에

특히 평택경찰서는 김 형사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 용의 공문을 시에 발송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 형사는 "평택경찰서 소속 형사들이라면 누구 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군포·의왕 초중고 교감 78명 워크숍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정재용)은 지난 15일부 터 이틀간 경기도 평화교육연수원에서 군포의왕 지역 내 초·중·고 교감 7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혜문 스님의 '대한제국 국새가 돌아왔다'를 주제로 세계문화유산 반환운동을 통한 나라사랑의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강 연 등이 진행됐다. 정 교육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교육 혁신 풍토를 조성하고 365일 청렴 한 생활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나가자"고 강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

道율곡교육연수원 '원탁토론광장 직무연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강치원)은 15~16일 초· 중학생, 초·중등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원탁토론광 장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두 15시간 11개 강좌로 진행된 연수는 '원탁토론 이란?' '소통과 공감의 회의진행법' '패널토론·그룹 토론' '미래를 개척하는 리더의 길' 등의 주제로 초• 중・고 교장・교감 12명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학생 들의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강 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었다"면서 "이번 연수는 올바른 토론 및 회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조손 가정에 '사랑의 집수리'

우리농업지키기운동 경기본부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명규)는 지난 15일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에서 농협 경기지역본부 유창재 부본부장, 이병택 안성시지부

장, 윤택구 죽산농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80대 조손 가정의 집을 보수해 주는 '함께나눔 사 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송 본부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이야 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에 농촌지 역 어려운 가정의 낡고 오래된 집을 고치는 봉사활동 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

"신 경영시스템으로 글로벌 도약"

표주영 교존에프앤비(주) 사장 취임

좋은 재료, 바른 먹거리를 선도하는 교촌에프앤비 (주)(회장·권원강)가 16일 오산시에 위치한 본사 대강 당에서 그룹경영지원본부 표주영(사진) 신임 사장을 선임하고 취임식을 개최했다.

표 신임사장은 삼성물산 기획실장, 호텔신라 사업 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28년간 삼성그룹에서 마케 팅 및 사업기획, 기업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온바있다.

특히 2001~2002년 사이에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 (FRM)와 국제재무분석사(CFA)를 취득한 바 있어 리 스크 관리와 투자 분석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표 신임 사장 선임은 선진화된 경영시스템 도입



계획이다. 표 사장은 취임사에서 "교촌그룹이 가진 창의적인 경쟁력을 살려 남들보다 앞선 혁신적 고객가치를 전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소외층 이동편의 지원 "사회책임 다하는 공기업"

지역난방公, 도공동모금회에 차량 기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김성회)는 16일 본사 현관에 서 '사랑의 차량지원' 행사를 열고 사회복지시설에 차 량 3대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난방공사와 사회복지기관 관 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난방공사가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차량 3대(스타렉스 1대·모닝 2대)를 전

김 사장은 "지역 소외계층의 이동편의 증진과 효율 적 지원을 위해 적은 수량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어려운 사회복지기관과 소외계층 을 발굴하고 지원해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책임 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광주 곤지암초, 학부모회와 진로교육

광주 곤지암초등학교(교장·김화형)는 16일 행복한 학 교만들기의 일환으로 학부모회(회장•이규진)가 주관 한 가운데 '꿈바라기들의 꿈꾸는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자 마련했으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직업설계 능력 배 양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의 조각가, 바리스타, 동물 사육사, 네일 아트사, 기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이날 학생들은 쌀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100여 kg의 쌀을 모아 학생회에 전달,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 음도 실천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용인동부署, 찾아가는 사고예방 교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정승호) 교통경비계는 16일 용 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여산관광과 뉴신명관광 영 업소에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찾아가는 교통안전교 육'을실시했다.

동부서는 지난 9일 용인시내에서 3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시외 버스기사 음주 사건을 계 기로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버스운전기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DMB 시청 금지 등 적용 법조항 안내와 시청각 자료 상영 순 으로 진행됐다 .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도내 기관·단체·학교 잇단 '상생 맞손'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본부장·권춘택)가 SK하이닉 스, 삼성전자와 고품질 전력 공급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유기적 협 조체계 구축, 전력기술 컨설팅 및 고객설비 고장시 긴 급 복구 지원, 동해계 전력수급대책기간 고객 수요관 리 협조 체계 등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 장시 비상자재 우선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 및 고장시 인력 및 기술지원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 급받게 된 것에, 또 SK하이닉스는 전압 강하 피해 발 생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경기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연맹장・박기춘 국회의 원)은 16일 국회의사당에서 도시와 농촌간 교류 증진 을 위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상호 발전을 도 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도시 청소년들은 앞으 로 연합회를 통해 짚공예, 떡메치기, 숲속힐링, 에코 하이킹, 수상생물체험 등 다양한 농촌 활동을 갖는다.

이날 박 연맹장은 "연합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이 도농교류 증진은 물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토대 를 마련했다"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 촌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안산대학교(총장·김주성)는 최근 상록구보건소에서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안산시건강증진센터, 안산시중 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건 강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안산대학교 학생 및 직원들의 생명존 중과 정신건강 증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안산대학교 학생복지처 한성택 처장(글로벌IT비즈 니스과 교수)은 "교내 상담실을 운영해 본 결과 대학 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협약을 맺게 됐다"고

안산/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수원서부署, 광역버스기사 안전교육

수원서부경찰서(서장·조희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께 수원시 오목천동의 용남고속버스회사를 방문해 광 역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운전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버스 사고 통계, 중요 위반 행위로 인 한 사고 사례 및 사고 영상물 시청,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 강조 등 광역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많은 사람들 이 이용하기 때문에 작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키며, 안전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사람들·인천 **경인일보** 제21282호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11



IPA, 입주기업과 북항일대 대청소

인천항만공사(IPA)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위해 북항 일대를 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청소에는 IPA 임직원과 북항 부두운영사, 배 후단지 입주기업, 사용기업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여 해 7 t 가량의 생활쓰레기와 슬러지 등을 수거했다.

남태희 북항사업소장은 "항만대청소를 지속적으 로 실시해 북항 이용 기업과 고객들에게 깨끗한 항만 환경과 안전한 물류여건을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 yeongin. com



민주평통 계양구협 탈북청소년 강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회장・최재 현)는 지난 14일 동양중학교 대강당에서 전교생 4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탈북청소년이 북 한에서의 삶과 탈북 경위,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이야 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불은초-삼성초 전교생 공동미술전

인천시 강화군 불은초등학교(교장·최병대)와 삼성초 등학교(교장·정종숙)는 16일 조선시대 군사 유적지인 광성보 안해루에서 공동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 다. 전시회에는 두 학교 전교생이 수업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만든 민화·수묵화, 목판화와 염색 작 품, 테라코타 등의 작품 300여점이 전시됐다. 두 학교 어린이들은 개막 식전 행사로 작은 음악회를 열어 행 사를 더욱 빛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오손도손' 전교생 봉숭아 물들이는 날

텃밭서 키운 꽃잎 따 찧고 손톱 물들여 주안초 4년째 전통풍습 자연 체험행사

"제가 씨도 뿌리고 직접 따서 한거예요, 예쁘죠?"

16일 오전 11시께 인천 주안초등학교 5학년 1반. 반 학생들이 조별로 둘러앉아 봉숭아물 들이기에 한 창이었다. 저마다 학교 텃밭에서 직접 따온 봉숭아 꽃잎을 절구에 찧은 후 백반에 섞어 손톱에 붙였다. 아직 서투른 손길을 도와 선생님과 친구들이 서로 도 움을 주고 받으며 오순도순 봉숭아물을 손톱에 입히 고 있었다. 잎이 모자라 세 손가락만 하고도 좋아서 히죽거리는 친구도 있고, 몇몇 친구들은 신기한 듯 봉숭아물을 입힌 손가락을 마냥 쳐다보고 있다.





학교 텃밭에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기꾼 봉숭아로 전교생 손에 봉숭이물들이기 행사를 한 인천 주안초등학교 학생들이 16 일 오전 봉숭아 물을 드린 손을 내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이날 '봉숭아 물들이기'체험 행사는 평소 텃밭을 가꾸는 것을 즐기던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에서 시 작됐다. 5년 전부터 학교 운동장 곳곳에 조성한 텃밭 에는 고구마, 벼, 수세미, 목화 등 각종 식물이 자라 고 있다. 이 텃밭에 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를 가진지도 벌써 4년째. 이 제 전교생들은 직접 씨를 뿌려 봉숭아 꽃을 정성스레 가꾸며 성장 과정을 관찰한다. 봉숭아 물들이기 행 사는이 학교 전통 행사로 자리잡았다.

한성현(11)군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직접 해 보니 좋다"며 "꽃잎을 빻아서 붙이면 손이 빨개지는

게 신기하다"며 즐거워했다. 이틀 전 행사를 진행한 1학년 학생들의 손가락은 이미 발갛게 물이 들어 있 었다. 김평석(7)군은 "처음 해보는데 엄마도 예쁘다 고 했다"며 "기분이 좋고, 한 손만 한 게 아쉽다"고 싱긍벙글 웃었다.

이 학교 정흥섭(59) 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아 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전통 풍습을 익히면서 추 억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하나되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창 의·인성 교육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신세계百 숭의동서 집수리 봉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16일 인천시 남구 숭의동에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신세계 인천점이 지역과 함께 하 는 상생경영활동 중 주력사업으로 올해 5년째 진행하 고 있는 '러브하우스 집수리 봉사단'의 일환으로 진행 됐다. 봉사단은 인천지역에 있는 불우이웃의 노후된 집을 방문해 수리해주고 있으며, 올해도 매달 한 가정 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 등의 집수리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 인천점은 지난 2010년 1월 집수리 봉사 를 시작해 최근까지 55개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세계 인천점 이존성 점장은 "우리 주변을 살펴보 말했다.



여경협 인천지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창립 15주년을 맞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이 하 인천여경협)가 지난 15일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회 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1999년 창립한 인천여경협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소유 한 여성들로 구성된 법정 단체다.

인천 여경협 초대 회장인 김현숙 명예회장은 축사 에서 "20년 전에 비해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제•재 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정부의 지원시책 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선배로서 보람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후배 여성 기업인들의 멘토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현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발 전이 곧 협회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개별 회원사의 애



비전기업협 선택제 일자리 관리자 교육

(사)인천광역시 비전기업협회(회장·안재화)는 16일 인천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시간(선택)제 일 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 회원사의 인사노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노무법인 사람&사람'의 박현진 대표 노무사의 강 의로 첫 번째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은 앞으로 3주 농안 매수 수요일 오후 3시에 열린나.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비전기업협회가 함께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는 ▲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50% 1년간 지원(월 80만원 한 도)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100% 2년간 지원 ▲투자금액의 3% 범위내에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세월호 참사 다신 없어야…



가천CEO아카데미총동문회 성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건호)는 16일 가천 CEO아카데미 총동문회(회장·김의복)에서 세월호 침 몰사고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635만원을 보내왔 다고 밝혔다.

김의복 총동문회장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자녀와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 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건호 모금회장은 "지역 사회의 리더들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큰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가천CEO아카데미(총장·이길여)는 2010년 1 기생 65명이 입학한 이래 총 322명의 수료생을 배출 했으며 올해에도 건강관리, 인문학, 문화, 예술, 리더 십, 자산관리, 노후생활 설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남동산단 재난대비 유관기관협 창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조성태)는 16일 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남동산단 재난대비 유 관기관협의회' 창립모임을 개최했다.

창립모임에는 인천시와 남동구청, 인천공단소방서

등 10여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남동산단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들은 앞으로 비상연락망과 재난대응 매뉴얼 등 필요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고 안 전교육과 합동안전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의장인 조성태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협 의회는 통합적인 재난대비 시스템을 통해 세월호 참사 와 같은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안전한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r

광고문의

인천 032) 861-3204 수원 031) 231-5271

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로사항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면 정말 열악해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정이 많다"고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www.songdobeer.com

'맥주, 문화를 만나다'

2014년 9월,송토세계문화축제가 찾아옵니다!

2014. 9. 12(금) ~9. 20(토)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 뒷편 야외광장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송도축제는 국내 최대 맥주축제라는 신기원을 수립하고, 연인원 3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인천송도를 최고의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고 있는 2014송도세계문화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스 입점 문의: 032-830-0600

- 마실거리 세계 맥주·막걸리·와인·음료브랜드 등 / 먹을거리 치킨, 햄, 퓨전스낵 등 안주거리와 간식거리
- 알릴거리 축제를 찾는 전 세계인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할 기관·기업 등



송도세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경인방송 🍑 FM 90,7 M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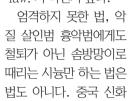
12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오피니언 제21282호 **경인일보**

| 참성단 |

제헌절 아침

달력에 빨간 날—노는 날이었다가 까만 날로 돌아온 제헌절 (制憲節)은 '제법절(制法節)' 또는 '제율절(制律節)'이기도하다. 憲, 法, 律이 모두 법이다. 그런데도 '제헌절'이라고하는 건 모든 법 중에서도 으뜸 법이자 모법(母法)인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기 때문이다. 영어로도 law, rule, regulation, act(행위, 법률)와 constitution 또는 constitutional law(헌법)는 구별된다. 그런데 constitution이 ①구성, 구조②체질 ③성질, 성격이라는 뜻이 앞서듯이 한 나라의 헌법(國憲)이란 그 나라 국민의 구조와 성격에 맞아야 하는 게 우선이다. 가장 흔한 법 단어 law, laws만 해도 속어로는 '이런!' '야단났네!'라는 뜻이기도 하다. 법률, 법령이 엉터리로 실천, 집행되고 법도와 율도(津度)가 형편없이 일그러져버린

꼴을 목격했을 때 터져 나오는 신음 소리가 바로 'law!'가 아닌가 싶다.





사통신은 지난달 17일 '어제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투르 판(turfan:吐魯番) 재판소에선 작년 6월 동 자치구에서 24명 의 사망자를 낸 습격사건 범인 1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판결이 사형이면 그 집행엔 지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교도소가 아닌 재판소다. 집행하지 않는 사형 자체도 위법이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사형수의 권리보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결과 찬성국은 유럽 쪽 국가들, 반대는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였고 미국과 러시아 한국은 기권이었다. 웃기는 건 사형 집행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기권한 미국의 두 얼굴이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재판 과정은 또 어떤가. 그 역시 일종의 허례허식과 따분한 요식행위, 그런 법정 쇼에 불과하다. 욕설 '이 XX'를 연상케 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재판, 국가 전복기도 혐의에도 수십 명의 변호사가 엉켜 붙는 재판 쇼라니! 그게 1년이 다 됐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직도 잡지 못하는 도망자 유병언을 비롯해 모조리 사형→즉각 집행 감이건만 그 지루한 법정 쇼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오늘 또돌아온 제헌절 아침, 답답하고도 불쾌할 따름이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회장 이길여 | 발행·편집·인쇄인 송광석 | 편집국장 박현수

본사 <mark>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홍442-702 전화031)2315-114</mark> 팩스 232-1231, 223-2662 편집부 2315-339 전치부 2315-350 경제부 2315-351 사회부 2315-360 지역사회부 2315-370 사진부 2315-316 문화체육부 2315-380 교열부 2315-340 디지털뉴스부 2315-375

인천시 남구 학익1동 684-1 9402-041 전화 032)861-3200 팩스 861-

3206,3209정치부 861-3200 경제부 861-3201 사회문체부 861-3202 사진부 861-3203 인천공항분실 752-0007 배달사고 문의 751-7077

서울 성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정빌딩 801호 (위150-608 전화 02)780-본부 0456 팩스780-0356 취재부780-0458 광고부780-0457

광고문의 수원 031)2315-252~9 인천 032)861-3204 서울 02)780-0456 구독료 월10,000원 / 1부500원 구독신청 031)2315-503

| 경제전망대 |



이 민 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인간은 자동화 기계로

대량 생산된 존재 아닌

창조주에 의해 각자 개성있는

삶을 부여 받았다.

우리모두 집단화 틀 속에서

벗어나 홀로 서도록 노력해야



우상 섬기기에 맹목적인 우리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모양을 갖추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외관상 사람 모습을 한다고 사람일 수가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 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늑대 소년과 같이 자연형태의 인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오늘의 나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그들 모습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쉼없는 노력과 수련을 닦 았다. 숨쉬기 운동을 빼고는 어쩌면 모두 자기와 같이 생긴 어른과 스승을 따라 익히고 또 익혀서 복잡한 현 대 속의 인간으로 성장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순전히 원숭이처럼 흉내내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삶일지 모른다. 우리는 태어나서 흉내내기를 바란다. 어린이의 목표는 어른의 현재이며 교육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자 가지고 태어난 모난 개성은 둥그렇게 닳아 어른이되면 어느새 개성없는 인간으로 되어간다. 교육은 이런 흉내내기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성숙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은 모두 이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인간 각자는 자기 교육의 길을 가고 개개인의 이상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커가면 커갈 수록 다른 사람과 집단의 길을 가고 그 이상과 틀 속에 묶이려 한다. 그래서 결국 인간 각자는 남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를 떠나 남이 될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집단의 행동양식과 규범, 사고방식 속에 만족하게 되며 우상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간다. 그들이 도달하려는 목표에는 제각각 어떤 전형이 설정돼 있다.

인기 있는 가수의 노래나 춤 동작, 인기개그맨의 말과 행동, 아니면 어느 소설의 주인공이 그들의 우상이 돼 생활과 사고를 지배한다. 집단의 우상에 사로 잡힌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은 자기 집단화와 비타협성이다. 그들은 선입견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집단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집단 속에서 자기만족을 얻으며 자기 열등감을 해소시키려 든다. 나 대신에 자주우리라는 말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지연·학연·혈연을 치켜세우고 미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한다.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유명한 누구누구도 잘 아는 우리 대학, 고향 선배와 같은 말로 장황하게 주위사 람들에게 울타리를 친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보 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집단심리가 작용하면 자기 구성원은 무조건 좋게 평가되고 타 집단의 구성원은 나쁘게 평 가하는 사회심리학적 병폐가 나타난다. 자기 집단의 사람들에게서는 장점만을 보려는 맹목이 그를 비이 성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타 집단 소속원이 잘 못하면 논리정연하게 잘잘못을 따지지만 자기집단 소속원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이해심이 크다.

우리네 조상들 역시 제 마누라, 자식 자랑하는 놈을 푼수라 했고, 못난 놈이 가문 자랑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자기 우상을 섬겼으면 남이 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인하고 모른 척했으면 오죽 좋으랴? 그러나 우상섬기기에 맹목이 된 현대인들은 남의 것은 우상으로 보고 자기의 우상은 당연한 것으로 보니 딱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리석은 행위는 인간의 미지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껍질 추구에서부터 근원 추구에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참으로 각성이 필요하다. 어찌하여 밖의 것에 관심을 돌리고 밖에 있는 것만 찾으러 다니는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우상도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길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길을 같이 가준 사람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길을 홀로 고독하게 걸으며, 결국 자기 운명의 찬별을 따라 더듬거리며 간다.

우리 모두는 자동화 기계로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 니고 창조주에 의해 각자 개성있는 삶을 부여받았다. 끝으로 필자는 집단의 우상에 자기 얼굴을 새기지 말 고 홀로 서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 발언대 |

외국인 무료진료



김 미 수 광주시보건소 민원진료팀장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조건없이 서로 를 인정하며 동고동락하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산다 는 것은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타심은 이기심'이라는 황지우 시인의 말처럼 타인의 행복은 결국 나의 행복으로 귀결된다. 광주시보건소는 제도권 의료에서 소외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매월 둘째 일요일 뜻있는 일반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 여러봉사단체와 결연해 각종 검사와 진료를 하고 있다.

광주 외국인근로자 쉼터 등 6개 관련 단체에 약품을 지원하며, 입원 및 수술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내 병 원 등과 연계해 주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는 이들의 건강 권 보호와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7년전부터 무료 진료 서비스를 받고있는 필리핀 에 듀와도(57)씨는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자라는 신분의 한계로 엄청난 차별과 고통의 시간을 보 내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나도 존중받 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며 "부 담없이 이용하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당뇨를 발견해 약을 복용중에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혜택을 받으며 감사해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반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곳곳에서 제도와 권력·자본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혹독한 사실도 목도하고 있다. 제도와 국가는 소외되고절망에 빠진 세 모녀를 구하지 못했다. 활동보조인의도움을 받지 못하고 화재와 화상의 고통속에 쓰러져간 '장애등급제'의 희생양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안전망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이다.

이곳에 태어난 우리의 삶도 쉽지 않은데 편견과 차별,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및 언어 문제로 힘겹게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은 매우 클 것이다. 이주민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 의료서비스 배제, 3D업종,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많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불행하게도 너무 늦게 알아 차렸다.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가슴 아픈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알게 됐다. 나부터 변화하고 바꿔 야 한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누군가 고통과 좌절에 몸을 뒤틀면 모두가 아프다는 시실에 주목해야 한 다. 언어와 생김새가 달라도 그들이 바로 나의 시랑하는 친구요, 함께 살아기야 할 소중한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주 외국인 무료 진료는 그들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작은 몸짓이자 시작이다.

|노트북 |

김 영 준 /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이건음악회

시스템 창호 전문기업인 이건창호가 주최한 제25회 이건음악회가 이달 초 시작돼 인천과 고양을 비롯 국내 5개 도시에서 청중과 만나고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인천 도화동에 본사를 둔 이건창호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1990년부터 매해 해외 정상급 솔리스트, 또는 실내악단을 초청해 무료음악회를 개최한다. 이건음악회를 통해 국내음악팬과 조우한 단체로는 체코의 탈리히 현악 4중주단을 비롯 독일의 무지카 안티쿠아쾰른, 베를린 필하모닉 목관 5중주단 등 다채롭다. 특히 현지에서 얻은 명성에 비해 국내음악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공연기획사들이 내한 공연 유치를 주저한 단체와 솔리스트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기자가 경험한 첫 이건음악회는 2002년 제13회 때였다. 부산에 거주하면서 대학원에 다니던 기자는 이건음악회의 부산무대에선 무지카 안티쿠아 쾰른(MAK)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라인하르트 괴벨이 이끄는 MAK는 최정상급의 고음악(옛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와 연주법으로 연주, 정격음악·원전연주로도 불림) 연주단체다.

1973년 괴벨과 쾰른 음대 동창생들로 창단한 MAK는 주로 1650~1750년에 쓰여진 바로크와 종교음악 연주에 집중했다. 당시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고음악단체의 연주를 실황으로 들으며 알게된 경험들(독특한연주법과 그에 따른 표현력등)은 말로 다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MAK는 2006년 괴벨의 건강상 이유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접할 수 없는 단체가 돼 버렸다.

다양한 문화를 갈구한 전국 문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이건음악회가 올해로 25주년(Silver Jubilee)을 맞았다. 이건음악회를 위해 초청된 베를린 필하모닉 목관 5중주단의 호르니스트 퍼거스 맥윌리엄은 "한국에서 25년간 무료 음악회를 여는기업은 이건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많은 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큰 그림을 갖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다면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말했다.

지역 기업이 25년째 지속하고 있는 무료 연주회로 인해 인천에 대한 자부심까지 생 기는 요즘이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전화 031)231-5391~4 | e메일 opinion@kyeongin.co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012- 중-24081호

www.conel.co.kr

조루증, 약물로 극복할 수 있다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조루에 대해서 절실하게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시도를 하는 남성들 이 굉장히 많다. 환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심각 한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조루증은 사정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30~50%의 남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은 조루증의 정의를 명 확하게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루증은 남성이 수의적 사정조절 이 부족하여 스스로 원하기도 전 에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사정해버 리는 증상으로 성의학에서는 보통 질삽입 후 약 2~3분 이내에 사정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현재 조루의 치료는 수술법과 비수술법 이 있고 원인과 상태에 따라 먹는 약을 병 행하기도 한다. 수술법의 경우 음경의 감 각 신경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간단한



조루, 음경 - 귀두 확대 동시에 약물로 간단히 치료

수술이며 이보다 더 간단하게 감각을 둔하게 하는 시술이 약물주입법이다.

약물주입법은 비수술적으로 10분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시술로서 절개나 봉합과 정이 없는 비수술적 치료이므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징점이다. 효과가 없을시 한번 더 재 주입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

며 효과적인 시술법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만 조루가 치료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정시간이 조금 연장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정을 본 인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임으로 하루빨리 비뇨기과 전문의 와의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 이 더 큰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조루 수술 및 약물주입법 이후 체 질에 따라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건건봇네ㅋ

지름길이다.

ER 코넬비뇨기과 ▼ 를 쳐보세요



채가능 **Tel. (032)545-3700**



인터넷한글주소

오피니언 경인일보 제21282호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13

| 데스크 칼럼 |



배 상 록 정치부장

여검사

얼마전 검찰에서 조용한 행사가 하나 치러졌다. 검찰 릴레이 포 사'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럼. 지난 2월 출범한 대검 여성정책팀이 마련한 이 행사에는 지 난 2005년 수원지검에서 조직폭력 범죄를 맡았던 정옥자 검사를 비롯해 여성 최초로 특수, 공안, 강력, 기획 분야를 전담했던 여 검사 4명이 나서 후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했 다. 지난달, 첫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여 성검사, 대선배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후배들에게 강연한 데 이어 두번째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여성 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 검사 열명중 세명은 여성이란 얘기다.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500여명 중 여성이 18명에 불과한 상황이니, 실제 수사현장에서의 체감 비율은 더 높아진다. 지난 2009년 사법연수원 수료 신규 검사중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이후 검찰의 '여초(女超)'현상은 이 제 표현 자체가 진부한 상황이 됐다.

재보선 수원을 '새누리 정미경-새정치 백혜련'

여성 대통령까지 나온 지금에야 도통 '개념 없는' 사람으로 내 몰리기 십상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여자가 무슨…'이라는 말이 별 거부감없이 통용됐던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제아무리 똑 똑해도 '여자가 무슨' 한마디면 주변사람들 대개는 고개를 끄덕거 렸고, 당사자인 '여자'들은 이같은 편견에 맞서며 기껏해야 '그 여 자 참 지독하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 정 검사가 회고하듯, 당 시 수원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여자에게 걸리면 망신이니 싸움 을 하지 말자'는 자정 결의까지 나온 것도 맥은 좀 다르되 우리사 회의 뿌리깊은 여성비하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성인 검사는 여전히 '여검사' 다. 수년전, 내연관계였던 남성 변호사로부터 승용차와 핸드백 을 선물로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 검사는 '벤츠 여검사'로 지칭되며 온갖 지탄을 받았다. 사건의 본질은 검사로서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였지만, 세간의 관 심은 그보단 이 검사의 사생활, 해당 변호사와의 관계에 모였다. 젊은 여검사였기 때문이다. 여성 검사들의 수사상 성과나 실적 들도 대개는 섬세함, 온정, 부드러움 같은 수식어와 함께 '여검

7·30 재보선에서도 여검사가 화제다.

수원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백 혜련 후보는 같은 대학·사시 1년 선후배 관계로, 둘다 검사 출신 이다. 검찰을 떠나는 과정도 엇비슷했다. 정 후보가 노무현 정부

출신 너무나 닮은 '女검사간 대결' 흥미진진

시절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책을 발간하고 검사직을 그만뒀다면, 백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 하다 "정치 검찰이 부끄럽다"며 사표를 냈다. 각각 여야로 나뉘 어 상반된 길을 걷게 됐지만, 둘다 상명하복의 검찰내에서 권력 에 맞서 옷을 벗었다는 공통의 개인사(史)를 갖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거물 대 신인, 토박이 대 낙하산 등등의 구도를 형성하며 나름 열전이 이어지고 있다지만, 구경꾼의 입장에선 이 '여검사간 대결'이 자못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과 반의석 회복에도, 야당의 세월호 민심 이어가기에도 그닥 관심 없는 유권자들에게, 그것도 삼복지경 휴가절정기에 치러져 투표 율을 걱정해야 하는 재보선에서 그나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치가 성사된 셈이다.

기왕이면 이 재미있는 대결이 가뭄의 단비 같은 흥행성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구태와 이전투구가 판치는 게 작금의 선거 판이었다면, 적어도 이 두 후보의 대결만큼은 권력의 부당함에 맞섰던 검사의 기개를 겨루는 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다. 원칙에

권력 부당함에 맞섰던 기개 겨루는 장 됐으면…

충실해 범죄꾼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수십년 검찰의 폭탄주 회 식문화까지 바꿔버린 여검사들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재연된다 면, 아직 이 사회 어디엔가 발톱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 자가 무슨…' 따위의 편견은 남자들의 비겁한 자기합리화였을 뿐이란 걸 다시 증명하게 된다. 대한민국 여검사 출신다운 정정 당당한 승부라면, 유권자가 누구를 택하든 두사람은 모두 승자 가 된다.

[사설]

인천AG 개·폐회식 우려되는 교통대란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요 행사인 개폐막식이 열 리는 서구 주경기장 일대에 교통 대란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회조직위는 서 구 주경기장 개폐막식 당일 입장권이 모두 팔릴 경우 5만8천명의 일반관람객과 2만3천여명의 대회 관계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 폐회식 한시간 전후로 차량이 일시에 몰려 도로 마비, 주차문제, 대중교통 노선 연결 부족 문제 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철도 연계 강화, 노 선버스 증차, 주요 거점별 셔틀버스 배치, 일반 승용차의 권역별 접근 유도 등을 마련했다. 가 장 우려되는 주차장 부족 문제는 주경기장 인근 의 유휴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가닥 을 잡았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4천대), 드림 파크 문화재단 일원(2천대), 가정택지 4블록 및 학교부지(2천200대), 가정택지 7·8단지(4천 대) 등 차량 총 1만5천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임 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9월 19일의 개회식과 10월 4일의 폐회식에 몰릴 차량은 2만여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 가능한 주차장은 최대 1만5천대에 불과해 서 5천여대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더 큰 문제 는 대회를 70일 앞둔 시점인데도 확보했다고 한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차장 조성비인 시비 6억 2천만원이 6월 26일에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소 90일이 소요되는 주차장 조성공사 를 착공조차 하지 못한 이유다.

이같은 교통문제는 주경기장과 직접 연결할 인천지하철 2호선의 개통이 2016년으로 연기 될 때부터 거듭 제기되어 왔다. 주차장 문제도 주경기장 관람석이 6만2천818석인데 경기장 내부 주차공간은 고작 1천900면으로 설계한 자 체가 문제였다. 인천시와 서구가 충분히 예견 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예산 탓만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개폐회식 행사는 아시아인의 주목 속에 펼쳐지 는 인천AG의 하이라이트이다. 임시주차장 확 보가 더이상 어렵다면 관람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주경기장과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1호 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 개 막이 불과 2개월 남았다. 교통대책 마련에 만전 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수립이 먼저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처가 시행된 첫날 시민들 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냥 지나치 는 버스 때문에 보통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 는 등 지각사태가 속출했다. 인천공항발 비행 기를 놓친 승객들도 비일비재했다. 출근전쟁이 라기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었 다고 한다.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거주 승객 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다는 것은 알지만 대책없이 갑자기 시행한 것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16일부터 광역직 행버스의 입석 운행을 전면 금지한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 다. 국토부는 입석 금지에 대한 대책으로 총 62 개 노선 222대의 버스를 증차한다고 밝혔다. 그 러나 실제 효과는 16일 출근시간을 통해 미미함 을 드러냈다. 노선 폐쇄와 감차를 감안하면 137 대만 증차된 셈이다. 그래서 서울 인근의 경기 도내 지자체는 빗발치는 민원에 하루종일 시달 려야 했다. 심지어 지하철도 좌석제를 운영하 라는 볼멘소리마저 나왔다.

용인 흥덕지구 각 아파트 승강기에는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의 증차를 위해 폭탄민원을 제기

하자는 안내문이 붙여졌다. 이에 시 공무원들 이 주요 정거장마다 공무원을 배치해 승차안내 및 계도에 나섰지만 승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광역직행버스의 경유 지인 의왕시의 경우 증차에 따른 효과가 없을뿐 더러 출발지가 타지역에 있어 대책마저 없는 실 정이다.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들도 확실한 증 차대책이 없는 이 정책의 성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차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승객들의 분산효 과는 있지만 버스전용차로의 용량포화로 속도 저하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시민불편이 가중된 다는 주장도 있다. 승객의 과적이나 입석상태 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건 사실이다. 그래서 좌석제가 나왔다. 하지 만 아무런 준비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 제다. 증차가 이뤄진다 해도 출퇴근 시간대를 빼고는 텅텅 비는 노선은 어찌할 건가. 담당공 무원들이 기점별로 나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도 사전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도권광역교 통본부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대책을 먼저 수립 하는 게 광역버스 좌석제 성공의 정답이다.

| 기고 |



남 길 우 경기도 언론정책팀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소망은 무병장수일 것 이다. 불로장생은 역사에서나 옛이야기, 그리고 종교 경 전에도 등장한다. 우리나라도 장수사회에 도달해 인생칠 십고래희가 옛말이 되고 있다. 2013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2.2%에 달한다. 우리 사회가 노인으로 간주하는 65세 이상이 600 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노인 인구는 날로 늘고 있는 추세 라서 2025년에는 1천만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독거노인의 증 가다.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0%에 달한다.

과학과 의학의 진보를 발판으로 100세 시대가 박두하 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시스템이 생애 주기 80세에 맞춰 있는 상태라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수는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창 팔팔한 50~60 대는 은퇴가 무섭고 노후가 두렵다. 조기퇴직과 명예퇴

100세 시대, 축복으로 맞이하려면

직이 난무하는 사이에 운 좋게 60세에 퇴직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과 사회적 파장을 불 러올 수 있다. 주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없다면 누구든 고독한 말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100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그레이 쇼크(grey shock)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률 못지않다. OECD국가 가운데 1위로, 평균 노인 빈곤율(2010년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4%)의 3배가 넘는다. 노 인 빈곤율 상승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 여성 노인의 경제상황이 남성 노인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중고령 여성이 세대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59.2 %, 70세 이상인 여성 세대주 가구의 빈곤율은 74.9%에 달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늘고 있는데 상 대적으로 노인복지가 잘 이뤄져 있지 않아 많은 노인이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과 같은 비임금 자영업이나 청소

용역·택배와 같은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로 내몰린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에 여실히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39.6%에 이르지만, 노인복지 점수는 100점 만점에 39.9점을 기록해 세계 69위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70위)뿐 이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100세 시대를 맞이한 선진국 들이 노인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레이 쇼크를 행복한 실버사회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며, 선 택이 아닌 필연적 의무임을 공감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장수를 축복으로 인지하고 그 대가를 지 불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100세맞 이라 할 수 있다. 처량하고 서글픈 회색이미지를 지우 고 지혜와 경험을 갖춘 어르신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 환이 오늘의 과제인 것이다. 비록 물질적으로 큰 도움 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네 오랜 정서가 정말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중국의 유명한 시 인 왕발(王勃)의 시 한 구절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세상 끝에 있어 도 이웃과 같으리(海內存知己 天涯若比隣)' <두소부지 임촉주(杜少府之任蜀州)>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비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4년 7월 17일

주식회사 유니텍 경기도 회성시 팔탄면 터넉골로 청산인 이 완 두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4년 07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1, 425, 345, 000원 중 이익잉여금으로 취득한 우선 주 급57,500,000원을 제외하 자본급 1,367,845,000원 중 금1, 231, 060, 500원을 감소하여 금136, 784, 500원으 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10주 를 병합하여 같은 액면주식 1주로하여 발행주식총수 , 735, 690주를 273, 569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ㅇ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제일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본 회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일로부터 1월내에 구주권을 본회사 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7일

디오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주 영

인천시 서구 신현동

토지 매매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신현동 185-14외 1필지

2. 면 적: 675m² (204평) 3. 지 목 : 대 4. **용도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5. 추천용도**: 원룸건물, 카센타, 유치원, 대형학원, 가든, 주상복합건물, 등등

주변에 다수의 학교와(초=2,중=3,고등학교=1)서구 원신공원 옆, (북향) 왕복4차선 코너로서 상가건물로 신축하여 운영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임.

청라지구와 아시안 주경기장 인근으로 최고의 입지지역임. ★ 매매가격: 금 16억 3천만원★

문의 010-2258-3077





임대사업의 황금밭 - 구미국가공단

• 410m² / 827m²

• 상가2, 주인세대포함 9가구, 2005년 ● 10×8m <u>도로코</u>너

> • 거품을 쏘옥 뺀 가격 매매 8억6천

월415만★인수가2억4천

확실히 다릅니다! 통장만 확인하십시오. 관리는 제가 100% 책임집니다.

정직한 중개 우영공인중개사 [소장:윤성수/가421-472/경북구미]

kyeongin com रेश्ह्र ह **경인일보** / 지면·배너·전광판광고 수원 031-231-5271 인천 032-861-3200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신개념 운송서비스! 대리운전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대, 언제든지 OK!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부근)

2. 면적

(토지) **4,409.**4m²(1,333평) (건물) 14.051.3m²(4,205평)

3. 동력

2,300kW

4. 준공연도

2008년 11월

5. 추천용도

전자, 반도체, 핸드폰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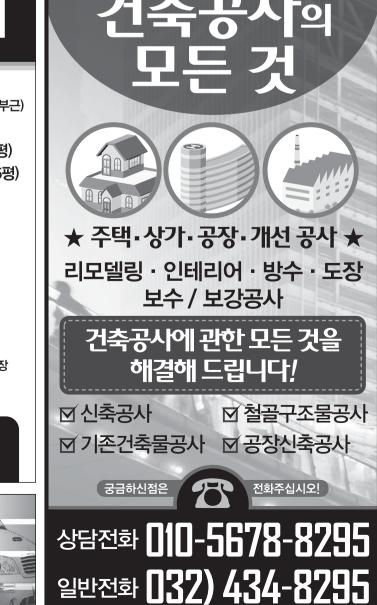
6. 매물특징

① 동탄 삼성전자 부근 및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공장 ② 1층 ~ 3층 2,000평 클린룸 설치 (1천C) ③ 고효율조명(LED)사용. 태양광 풍력발전기 설치

<u>공인중개사</u> 사무소

032-815-4014 010-5061-4014





14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제21282호 경인일보

보인다, AG 3연패



16일(한국시간)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겸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태환이 남일반부 자유형 200m 결승전을 마친 뒤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마린보이 박태환, MBC배 '올 세계랭킹 1위' 기록

'마린보이' 박태환(25·인천시청)이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겸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 남일반부 자 유형 200m에서 대회 신기록과 함께 올 시즌 세계 랭킹 1위 기록을 세웠다. 박태환은 16일 경북 김천실내수영 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일반부 자 유형 200m 결승에서 대회 최고 기록 인 1분45초25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자신이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운 한국 기록(1분44초80)에 0.45초 뒤진

자유형 200m 1분45초25 카타르・中 이어 우승도전

대회 신기록이다. 또 올 시즌 남자 자 유형 200m 세계랭킹 1위 기록인 캐 머런 맥어보이(호주)의 1분45초46도 넘어섰다.

대한수영연맹은 이 대회에서 종목 별 1위 선수에게 인천 아시안게임 경 영 대표 선발권을 준다. 박태환은 2006년 카타르 도하 대회와 2010년 중국 광저우 대회 자유형 200 m에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 다. 이날 우승으로 박태환은 인천 아 시안게임 3연패란 대기록에 도전할

자격을 갖게 됐다. 또 양지원(부천 소 사고)은 여고부 평영 100m 결승에서 1분08초83의 대회신(종전 1분09초 78)을 작성하며 권민지(서울체고·1 분09초41)와 황윤정(인천 안남고・1 분12초53)을 제치고 종목 1위에 올라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남중부 평영 100m 결승에선 김한

준(남양주 미금중)이 1분06초70을 마 크, 이재민(용인 상하중·1분07초54) 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으며, 남고부 접영 50m에선 성시영(경기체고)이 25초33으로, 여고부 접영 50m에선 박진영(인천 안남고)이 27초91로 나

란히 우승했다. /임승재·이원근기자 isj@kyeongin.com

AG복싱 선발 편파판정 항의코치 이의신청 기각

상벌위 "명백한 질서문란"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국가대표 선발 전에서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하며 링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김태 규 인천복싱협회 코치의 이의신청(경 인일보 7월16일자 14면 보도)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복싱협회는 16일 법제상벌위 원회에서 김 코치가 징계 절차상 중 대한 하자가 있고 이번 재심도 규정 에 위배됐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기 각했다고 밝혔다.

김 코치는 대한복싱협회 상벌위원

회 규정을 어긴채 징계 대상자인 자 신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않고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시효(재심사 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도 넘겨 이날 재 심 또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제상벌위원회는 대한복 싱협회의 입장대로 지난 3월26일 김 코치가 링을 점거한 것은 명백한 경 기장내 질서문란 행위이며, 이번 징 계는 경기장질서대책 특별위원회가 내린 것으로 상벌위원회 규정을 그대 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제명 징

계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 번 결과를 조만간 이사회에 보고하고 김 코치에게도 통보할 방침이다"고

김 코치는 이날 결정에 대해 다시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 김 코치는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다.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 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대한복싱협회 에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계란으 로 바위치기지만 끝까지 가볼 생각이 다"고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한국은 언제쯤 세리머니를…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 축구 대표팀이 16일(한국시간) 독일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정준 실업육상 허들 110m 대회新 '금'

남일반부 13초65 기록

이정준(인천시청)이 제26회 전국실 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 남일반부 110m 허들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 며 정상에 올랐다.

이정준은 16일 전남 여수 망마경 기장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일반

부 110m 허들 결승에서 13초65의 대회신기록(종전 13초96)을 작성하 며 명창기(용인시청·14초22)와 원 종진(국군체육부대·14초25)을 차 례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또 최동일과 이준희(이상 남양주시청)는 남일반부 3천m 장 애물 경기에서 각각 9분19초15, 9

분19초89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은 메달을 따냈으며, 홍인기(고양시 청)는 남일반부 800m 결승에서 1분 50초96을 마크해 김봉수(국군체육부 대·1분51초24)를 제치고 금빛 질주를 펼쳤다. 여일반부에선 조은주(인천남 동구청)가 400m 허들 결승에서 1분 01초54의 기록으로 박종경(경산시 청・1분02초89)와 신소연(시흥시청・1 분04초04)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쇼트트랙 박승희, 스피드스케이팅 전향검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스타 박승 희(22·화성시청)가 스피드스케이팅 으로 전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박승희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리온 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16일 "박승희 가 은퇴한 이규혁이 이끄는 팀과 함

께 스피드스케이팅 훈련을 하고 있 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 꾸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대회 참 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록 을 포함한 가능성을 검토해 본 뒤 결 정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승희는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에

서 쇼트트랙 여자 1천m와 3천m 계 주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냈고, 500 m에선 한국 선수로 16년 만에 동메 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 여자 간판 스 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박승희는 언니 박승주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로 활약하고 있는데다 쇼트트랙에서 올림픽 최정상에 오른 만큼 자신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뜻에서 종목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일주일에 5일을 지역돌보는 FC안양

학생부터성인까지프로다양 팬 프렌들리 클럽 수상경력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FC안양이 주 5일을 사회공헌활동 에 매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안양은 지난해 창단 때부터 구단 의 역점 사업인 사회공헌활동에 최 선을 다해왔다. 'KB국민은행, 동안 경찰서와 함께하는 학교원정대'를 비롯해 안양시축구연합회와 업무협 약을 통해 22개 생활축구동호회와 교류 프로그램 등 지역민들과 함께

또 올해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 로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축구 탐험대'를 시작으로 초·중·고등학 생을 위한 'KB국민은행과 함께하 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학교원정 대', 20~40대 성인을 위한 '나도 축 구선수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인 기를 모으고 있다.

안양의 사회공헌활동에는 코칭스 태프 및 사무국 직원도 참여한다. 이우형 감독을 비롯 코칭스태프는 매주 화요일 의왕시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다. 사 무국 직원들은 지역학교를 찾아 진 로교육도 한다.

이미 5개 학교에서 22회의 진료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번주에는 비 산초를 방문해 5학년의 모든 학생을 만났다.

안양이 사회공헌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역 사회에 축구라

가 튼튼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동안경찰서와 함 께하는 학교 원정대가 학교폭력 예 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 를 받았고, 지난 6월에는 한국프로 축구연맹으로부터 '2014 현대오일 뱅크 K리그 챌린지 2014' 팬 프렌 들리 클럽을 수상하기도 했다.

는 콘텐츠를 꽃 피우기 위해선 뿌리

FC안양 관계자는 "창단 초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역점 사업으로 지 정하고 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령대별로 세분 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시 민들과 만나는 일은 항상 즐겁다"고

말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가평 동호인전용 야구장 조성

가평군에 사회동호인 전용 야구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성기 가평 군수, 김훈도 데상트스포츠재단 이 사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동 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올해 안으로 가평군 설악면 선초리 375의 2, 1만㎡ 부지에 야구장 1면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가평 군은 부지 제공과 시설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지원을 하고, 데상트스포츠재단은 3억~5억원 정 도로 예상되는 시설비 전액을 부담키 로 했다. 완공 후에는 기부채납해 소 유권 및 운영권은 모두 가평군이 갖 는다. 스포츠 패션기업 (주)데상트코 리아가 설립한 데상트스포츠재단과 경기도는 야구장이 없는 시・군을 대상 으로 후보지를 물색해 왔으며 최종 대 상지로 가평군을 선정했다. 가평야구 장(가칭) 조성으로 가평군 야구동호인 들은 그 동안 야구장이 없어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됐다. 가평군 역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등 포화상태의 야구 수요를 일정부분 충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 지사는 사회동호인 야구 인프라 확충 을 위해 야구장이 없는 11개 시·군 등에 친환경 야구장 27개소 건립을 공약한 바 있다. 도내에는 20개 시・군에 78개 사회동호인 야구장이 조성돼 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 스포츠 로그아웃 |

분당경영고 농구 도대표 선발

성남 분당경영고가 제2회 도지사기 대회 겸 제95회 전국체전 농구 경기 도대표 선발전 여고부에서 우승하며 도대표로 뽑혔다. 분당경영고는 16일 수원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최종선발전 여고부 결승에서 이하은 (25점)과 차지현(15점)의 활약으로 홍소리(17점)가 분전한 수원여고를 75-47로 꺾고 정상에 올라 도대표를 확정지었다.

여자농구 외국인 드래프트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연맹 사옥에 서 2014~2015시즌 외국인 선수 드래 프트를 실시한다. 올해 드래프트에는 103명이 지원했으며 6개 구단이 2명 씩 총 12명을 뽑게 된다. 지난 시즌 정 규리그 성적 역순에 따라 6위 팀이 구 슬 6개, 5위 팀 5개 순으로 총 21개의 구슬을 넣어 추첨 순서를 정한다.

핸드볼 김온아 여성MVP

핸드볼 국가대표 김온아(26·인천시 청)가 2014 MBN 여성스포츠대상 6 월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김 온아는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2014 한일 슈퍼매치에서 한국 대표팀의 3 전 전승을 이끌었다. 2012년 런던올 림픽에서 오른쪽 무릎 인대를 다친 김온아는 1년이 넘는 오랜 재활과정 을 이겨내고 이번 시즌 SK 핸드볼 코 리아리그에서 소속팀의 우승과 대표 팀의 슈퍼매치 전승에 힘을 보탰다.

수원북중 시흥야구대회 1위

수원북중이 제3회 시흥시장기 경기 도중학교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수 원북중은 16일 시흥 소망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소래중을 6-2로 물 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수원북중 2루 수 고명규는 13타수 9안타로 6타점, 도루 5개로 타격상과 타점상, 도루상 을 휩쓸었고 대회 2승을 거둔 남호(수 원북중)와 방준서(소래중)는 각각 최 우수투수상과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江都의 하늘

하늘에는 아직 고려가 어른거린다 고려의 하늘 한됫박 퍼다가 백토 버무려 도요에 구우면 영원 그보다 머언 곳으로 비색 무궁한 색깔



한 점 구름처럼 어른거리는 고려 선조의 아픔 서린 강화를 추억하다



지난 11일 찾은 고려궁지의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보일듯 말듯 떠다니고 있다. 고려궁지엔 고려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강화 출신 시인 김차영은 강화의 맑은 하늘에 어린 고려를 노래했다.



김차영 시집 '상아환상(왼쪽)', '부릅뜬 태풍의 눈(가운데)'과 김차영이 쓴 '명도시 풍토기 강화편'이 수록된 신천지(1954년 7월 호) 표지.

쉽게 와 닿는 시가 있고, 첫 문장부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시가 있다. 전자의 경우 대개 독자들에게 다가 가기 쉽고, 후학의 연구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후자는 작가 개인의 품속에 머물다 잊히게 마련이다.

인천 강화 출신 김차영(金次榮·1922~?)은 후자를 택한 시인이다. 추상적이고 난해한 데다 초현실적인 문장. 김차영은 왜 그토록 어렵게 시를 쓰냐는 주변의 질문에 "시는 사람의 심리를 드러내야 하고, 사회학적이어야 하며, 불가해(不可解·이해할 수 없음)해야 한다. 알 듯 모를 듯한 것이 시다"라고 답하고는 했다. 1950년대 명동을 주름잡던 당대 주류 시인들과 늘 가까이 지내고 어울리는 동안 "왜 나는 박인환이나 조향이나 김규동처럼 유명해지지 못하느냐"고 한탄하면서도 "파리에서는 난해한 시를 쓸수록 유명하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김차영이 유난히 쉬운 시를 쓴 적이 있다. 1986년 어느날 고향 강화의 맑은 하늘에 어른거린 고려를 노래한 시 '江都(강도)의 하늘'이다.

그는 강화의 곱고 짙은 푸른 색 하늘을 비취색 고려청자로 빚듯이 노래했다. 대중에겐 무명에 가까운 이 시인을 인천이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고집과는 다른 '쉬운 시' 때문이다. 고향은 어려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누구보다 강화와 인천을 잘 알고 아끼는 시인이기도 했다.



강화에서 찍은 염하.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리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글=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김차영이 읊은 강화의 하늘을 만나기 위해 강화군 관청리 강화초등학교 뒤편의 고려궁지를 찾았다. 30°C를 넘는 무더위 때문인지 10명도 채 안 되는 방문객들은 옛 고려의 도읍터 이곳저곳을 둘러보곤 이내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혔다. 맑고 높은 하늘에선 구름 한 점이 보일락 말락 오갔다. 고려청자에 깃든 바로 그 하늘이었다. 이따금 부는 바람은 맺힌 땀을 들이게 했다.

고려는 고종 19년(1232) 몽고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의 요새인 강화로 도읍을 옮기고 원종 11년(1270)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간 이곳을 궁궐로 사용했다. 당시 개성 송악산 자락에 있는 궁궐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는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순 없었다.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고 강화를 떠나면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궁궐과 성곽을 모두 헐어야 했다. 강화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땀으로 세운 궁궐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려궁지는 '궁터'라는 그 이름만으로 옛 강화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강도의 하늘'은 1986년 5월 그가 '월간문학'에 발표한 시다. 그가 60세가 넘어서야 고향의 시 '강도의 하늘'을 쓰게 된 이유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에게 고려의 기운이 담긴 강화의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진작부터 있었다.

1977년 10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이 갑곶돈대와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등 전적지 복원을 기념해 강화도를 찾았을 때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전적지를 둘러보고 고려의 옛 궁터를 방문해 강화 문화계 인사들과 다과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화 출신여류 문인 조경희가 "강화가 이제 천지개벽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김차영에게 "시로 표현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단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유가 '강도의 하늘'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는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김차영은 이미오래 전부터 강화를 알리고 싶어했다.

김차영은 1954년 7월 서울신문사 출판국이 발행한 '신천지(新天地)'에 '명도시 풍토기(名都市 風土記)' 시리즈 '강화편'을 썼다. 어렵사리 구해 본꼭 60년 전에 나온 '신천지'에는 김차영의 강화 사랑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6쪽에 걸쳐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 명소, 천연기념물과 전설을 지닌 역사의 고장(史의郡)"이라고 자랑했다.

김차영은 이 글에서 강화의 천연기념물인 탱자나무 두 그루를 빗대 강화의 정체성을 '남과 북'의 결합이라고 말한다. 강화읍 갑곶리와 화도면 사기리엔 각각 수령 400년이 넘는 천연기념물 78호, 79 호 탱자나무가 있다. 주로 남쪽 지역에서 자라는 탱자나무의 최북단 서식지가 바로 강화도다. 김차 영은 "탱자나무는 우리나라 양대 문화를 형성한 남 방계 문화와 북방계 문화가 여기서 교접(交接)했음 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김차영의 말대로 오늘날 강화는 남북 교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다.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강화 교동평화산단 추진이나 강화와 개성의 고려시대 유적 연구를 위해 남북 학술 교류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바람이 그 예다. 김차영은 강화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일찍이 내다봤던 셈이다.

김차영은 1957년 5월 '시와 비평'에 '鹽河水道 (염하수도)'라는 고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내놓 는다. 염하는 강화와 김포 사이의 물길을 말한다. 이 물길을 따라 갑곶돈대와 초지진, 덕진진 등 방 어요새들이 들어서 있다. 유난히 빠른 유속의 염하

1986년 고향 노래 '강도의 하늘' 발표
자신의 평소 철학과 달리 '쉬운 시'
앞서 탱자나무·염하 통해 '강화' 표현
대몽항쟁 등 역사적 공간 의미 알려
상경후에도 인천문화 현실·정체성 고민

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합류시키는 듯한 인상이다.

기억에 담긴 고놈의 음성이, 종내 말썽이었다/ 진저리 나는 검은 촉감, 무척 濕(습)해진 冷氣(냉기) 와 그 고요에 둘러싸인 주검과, 또한 惡魔(악마)의 환상들이 그대로, 나의 현실로 合流(합류)해 간 鹽 河水道(염하수도)…(이하 생략)<鹽河水道 중에서>

강화의 찬란한 역사 뒤편에는 염하에 묻힌 우리 선조들의 아픔이 거세게 흐른다. 왕도와 가까운 지 리적 특성 때문에 전란이 발생하면 늘 외세와 맞닥 뜨려야 했던 방어지였다. 고려 때의 대몽항쟁과 근 대 시기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그리고 강화도조약의 계기가 됐던 운요호 사건(1875) 등이 염하를 따라 일어났다. 김차영은 염하에 어떤 생각 과 기억들을 내던졌을까.

과기역들을 대단었을까. 김차영은 고향 강화를 기억하고, 그리워했다. 김차영과 1950년대 '다이알(DIAL)' 동인으로 활 동한 김원태(金元泰·84) 시인은 지난 9일 전화 인 터뷰에서 "김차영의 시는 읽는 이로 하여금 고향생 각이 나도록 했던 것 같아요. 내 출생지가 평북 강 계(江界)고, 살았던 곳이 평양인데, 김차영 선생 고향 강화가 이북이랑 가까운 곳에 있다보니까 명 동에서 서로 고향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차영은 1922년 강화 길상면에서 태어나 14세 때부터 인천에서 살았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메 이지(明治)중학교를 거쳐 리쓰메이칸(立命館) 대 학에서 문과과정을 수료하고, 타나카공업주식회 사에 근무했다.

해방 이후 인천에서 한상억 등과 함께 전국 최초 의 동인지 '문예탑'을 만들었고, 한국전쟁 무렵엔 피란지 부산에서 김경린, 박인환, 김규동 등과 함 께 후반기(後半期) 동인활동을 하면서 모더니즘 운 동을 일으켰다. 개인시집으로는 '상아환상(象牙幻 想)'(1969), '부릅뜬 태풍의 눈'(1984), '얼굴 그 얼 굴들의 여울'(1989) 등 세 권이 있다. 대중일보, 동 양통신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고, 1970년대엔 대한상공회의소 출판부장을 맡기도 했다.

김차영은 한국전쟁 이후 서울로 떠났지만, 늘 인천 문화의 현실을 걱정했고, 정체성을 고민했다.

그는 8·15해방을 기준으로 '인천인'의 개념이 달라졌다고 했다. 분단 이후 인천항은 중국, 이북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반쪽짜리 항구가 됐다. 인천은 서울의 그늘 아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북월남민이 몰려들면서 인천은 이들을 감시하기위한 제일관구경찰청, 수상경찰서, 여자경찰서, 철도경찰서 등 정보·치안기관이 들어서 그야말로 '경찰도시'가 됐다. 그가 1·4후퇴 이후 서울로 삶의 터를 옮긴 이유다. 그러나 김차영은 인천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인석 등 인천의 시인들과 함께 전쟁의 불안과 격분을 외치는 시를 큰 종이에 써 하인천 거리에 내다 붙이는 일을 했다고 김규동 시인의 제자인 맹문재 안양대 교수는 전했다.

어쨌든 인천은 분단 이후, 특유의 지역문화를 형성시키지 못했다. 인천에 수준급 작가·예술인 이 나타나도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기고는 했다. 심지어 1947년 2월 인천에 세워진 해양대학도 1년 도 채 못 돼 군산에 빼앗기고 말았다. 이 같은 그의 고민은 1991년 학산문학 창간호에 실린 좌담 '인 천문화의 재건을 위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 좌담 엔 당시 윤영천 인하대 교수와 백승철 문학평론가 가 함께 했다.

그는 좌담 말미에 "지난날 인천이 낳은 비중 있는 문학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김차영 본인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어 후학들의 연구가 절실하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문화&종교 16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제21282호 경인일보

보통사람 꿈의 무대 '4일간의 초대'

'내생애 첫번째 공연' 26일부터 10월까지 매월 한차례



7월 26일 첫 공연에 참가하는 주부들로 구성된 '깍쟁이 밴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보통사람을 위 해 꾸미는 무대 '내 생애 첫 번째 공 연'이 오는 26일부터 10월까지 매월 1 차례씩 썬큰무대에서 열린다.

'공통분모(공연을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의 분주한 모임)'라는 부제 아 래 모인 15팀이 밴드, 노래, 클래식 음악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7월 26일 첫공연에서는 강렬한 밴 드 팀이 관객앞에 선다. '서울상경음 악단'과 '동네밴드', '큐브밴드'등 직 장인 밴드 3팀은 차라리 평범하다. 주 부들이 뭉친 '깍쟁이 밴드'가 로커스 트의 '하늘색 꿈'을, 평균연령 70대 의 '한마음실버밴드'가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로 무대를 장악할 예 정이다.

8월 23일에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무대를 수놓는다. 음악으로 기쁨과 희망을 전달하는 착한 중창단 '베아 르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 모니를 지어내는 '부천장애인합창 단', 통기타 반주로 추억을 불러들이 는 '포크하모니', 청량한 음색을 자랑

하는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 3인 조 혼성 퍼커션 밴드 '노래하는 풍선 껌'이 생애 첫번째 공연의 감동을 이

9월 27일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 으로 가을을 맞이한다.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준클 라앙상블', 오카리나 강사 모임 '더뮤 즈 오카리나 앙상블'등이 섬세하고 감성적인 연주를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내 생애 첫 번 째 공연'중 최고의 공연을 다시 만날 수 있다. 10월 18일 하이라이트 공연 의 출연자는 관객반응 등을 통해 결

이들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무대를 위해 경기도립예술단이 손을 보탠다.

경기팝스앙상블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멘토로 나서 공 연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한 계원예 대 영상디자인과 학생들이 기발한 아 이디어로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꾸민 다. 무료공연. 문의:(031)230-3200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종교간 교류 국민 상생 이끌어

| 인터뷰 | 채수일 경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종교도 자본주의 시장체계에서 자 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 도 돈보다 생명가치가 우선입니다, 그게 종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경기종교인평화회의(KCRP) 채 수일 대표회장(한신대 총장·사진) 의 말이다. 그가 이끄는 KCRP는 용주사, 정조대왕문화진흥원과 함 께 지난 11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 개최 남북관계 평화 계기 만들것

태양이 작렬하는 하늘아래 선 모 든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서 잊혀가는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 고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종교인이 주도한 행사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기독 교, 불교, 천도교의 구분이 없었다.

추모제가 끝난 후 만난 채 대표 회장은 "종교인들이 갈등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 서로 다른 종교인들 과 화해하고 대화하는 것은 서로의 오해와 갈등을 푸는 열쇠 효과를 만 들어 준다"며 종교 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교파를 뛰어넘어 국 민의 상생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설립된 KCRP의 대 표회장으로 일하면서 종교의 화합 을 위해 어려운 시국마다 종교인들 을 하나로 묶고 뜻을 모아 사회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월드컵을 맞아 경기도종교인들 이 2014개의 축구공과 2014켤레의 축구화를 가지고 방북, 청소년 축 구팀과 경기를 하는 계획을 세웠으 나 세월호참사와 지방선거로 실현 하지 못했다"며 "국내사정이 안정 되면 다시 이 일을 추진해 남북관계 에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유은총기자 yooec86@k yeongin. com



응답하라! 1984 굿모닝 미스터 오웰

백남준아트센터 특별전

제작 30周 현대적 의미 재조명

영상·설치작품등 50여점 전시

오늘 오프닝 퍼포먼스 다채





백남준아트센터(관장·박만우)는 17 일부터 11월 16일까지 특별전시 '굿 모닝 미스터 오웰 2014'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 스트 고(故) 백남준의 대표적인 위성 프로젝트로, 1984년에 제작된 '굿모 닝 미스터 오웰(Good Morning Mr. Orwell)'의 제작 30주년을 기념하고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원격통신이 가 져다 준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영국의 작가 조지오웰은 1949년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독재자인 '빅 브라더'에 대항해 인간정신을 지키려 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발표했다.

그는 "1984년이 되면 매스미디어 가 인류를 지배하리라"고 예언했다. 반면 백남준은 그의 예언에 대해 디어의 긍정적 소통을 보여주는 위

조 비안다, 송상희 등 총 17명(팀)의 (031)201-8571 작가가 참여한다. 백 작가가 1984년 1

월 1일 파리의 퐁피두센터, 뉴욕의 WNET 방송국을 연결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중심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엑소네모가 만든 '슈퍼내추럴(Supernatural)'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영상, 설치작품 50여점 이 전시된다.

백남준 미디어 아트 전시의 빠지지 않는 행사인 오프닝 퍼포먼스로 엑소 네모, 김태윤&윤지현, 폴린 올리베 로스 등 작가가 오늘날의 미디어 네 트워크를 각기 다른 퍼포먼스로 개막 당일 선보일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는 "지난 1984년 당시 전 세계 약 2천500만명 이 관람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현 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인터 "절반만 옳았다"고 말하며 매스미 한 현대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과 비 교해 봄으로써 백남준이 열어놓은 새 성 TV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 로운 예술의 의의를 확인하고 미래사 회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전시가 이번 전시는 백남준을 비롯해 로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여성듀오 '랄라스윗' 19~20일 서울서 단독 콘서트



여성 듀오 '랄라스윗'(김현아, 박별) 이 오는 19~2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 홀 뮤즈라이브에서 단독 콘서트 '너 의 세계'를 연다. |사진

이번 공연은 랄라스윗의 정규 2집 앨범 '너의 세계' 발매 4개월만에 열 리는 공연으로 앨범 발매 기념 콘서 트 성격이 강하다. '세계'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들의 연작 가 운데 첫 번째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세개의 파트로 구성된 다. 1부는 '인트로', 2부는 음반의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순서 대로 연주하는 메인무대, 3부는 '아

웃트로'로 구성됐다.

특히 2부에선 음악단편집이라는 이름 아래 일러스트와 뮤직페인팅,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이뤄졌던 그들의 작업 과정에서 느낀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작업도

이번 공연은 '2014 뮤즈라이브 대 중음악 공연지원 사업'에 따라 열린 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 흥원이 주관하는 대중음악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인천 태생의 인디레이 블 루비레코드가 진행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자연의 냉장고… 뼛속까지 시원하구나





가평 어비계곡 양평 중원계곡

중원산 기슭 곳곳 숨은 가족풀장… 중원폭포는 백미

아담한 폭포를 품은 계곡 '중원계곡'

중원산 동쪽 기슭을 흐르는 중원계곡은 물이 맑고 깊은 골짜기로 여름철 시원한 휴 식을 제공한다. 계곡입구부터 상류로 오르 는 동안 곳곳에 아담한 크기의 천연 가족풀 장이 이어져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나들이 에 알맞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그늘막 이 없어도 좋고 무엇보다 계곡하면 으레 떠 오르는 무질서한 음식점과 평상 대여 없이 잘 정비된 깔끔함이 좋다.

계곡입구에는 원두막과 나무데크가 조성 돼 당일 여행과 캠핑 모두 가능하다. 계곡

안에서 취사는 금지되어 있으나 주차장에 설치된 조리대에서는 버너를 이용한 조리는 가능해 고기를 구워 가족들이 있는 자리까 지 나르는 아빠들의 모습이 볼만하다.

중원계곡의 백미는 단연 중원폭포다. 입 구에서 약 400m 쯤 오르면 기암괴석이 병 풍처럼 펼쳐진 아담한 폭포가 보인다. 폭포 물이 차갑고 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주소: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706 '중원 계곡' 문의: (031)770-3312

- 주변관광지: 용문사, 용문산관광단지, 용문오일장

상류 경쾌한 물소리 하류 수심 얕아 아이들 물놀이

머물며 풍류를 즐기는 '어비계곡'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은 가평군 설악 면. 중미산과 유명산에 이어진 어비산을 감싸고 내려오는 맑은 계곡은 어비계곡 이다. 계곡에 물고기가 많아 물위로 튀어오 르는 모습이 마치 날아다니는 모습같다하 여 '어비(魚飛)'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운이 따르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나는 산천어

'어비계곡 문화마을'에서 상류로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캠핑장과 펜션이 자리해 여유로 운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시설마 다 계곡의 돌을 이용해 작은 물놀이장을 만들 어 머무는 동안 아이들은 튜브를 타고 보트를 띄우는 등 신나게 뛰어놀 수 있으니 예정보다 휴가를 더내고 머물러도 좋은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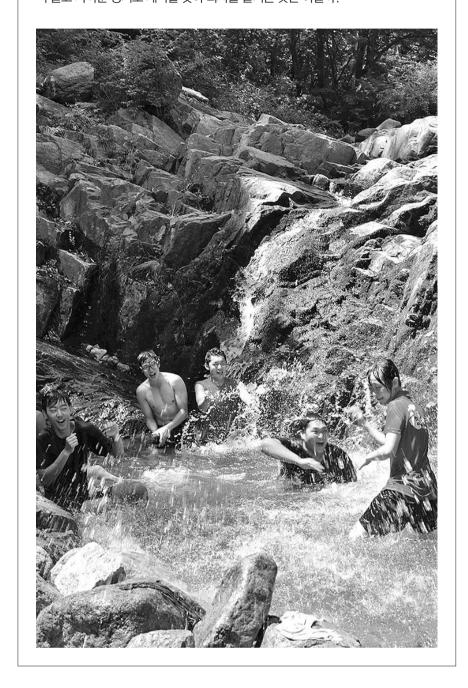
어비계곡의 상류는 크고 작은 바위 사이 를 흐르는 물소리가 경쾌하며 발을 담그면 채 5분을 견디기 힘들 만큼 차갑다. 위로는 양평군 갈현마을과 이어진다. 하류 쪽은 수 심이 얕고 물살이 빠르지 않아 안전한 물놀 이가 가능하다. 아래로는 어비1교 부근에서 유명계곡 물과 만나 벽계천을 거쳐 북한강 으로 유입된다.

-주소: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4 (어비산 길 99번지 9의10)

-주변관광지: 유명산자연휴양림, 중미산 자연휴양림, 청평호반

보물같은 경기도내 계곡 4선 >2<

하늘을 가리는 울창한 숲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크고 작은 바위 사이를 경쾌하게 흐 른다. 기암괴석과 어우러지다 낮은 폭포를 만나고 물장구치는 아이를 간지럽혀 웃음 짓게 한다. 경기도 계곡의 모습이다. 무더위를 피해 남으로 동으로 바다를 찾아 떠나 지 말고 가까운 경기도 계곡을 찾아 피서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안양 삼막사계곡

포천 백운계곡

관악역에서 버스로 10분… 우거진 숲길에서 달콤한 휴식

#삼성산의선물 '삼막사계곡'

삼막사계곡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울창 한 숲과 계곡을 만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하철 관악역에서 버스를 타고 10여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까우니 책 한권, 돗자리 하나만 달랑 들고 가볍게 찾을 수 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앞에서 삼막사까지 오르는 길 양쪽으로 번갈아 흐르는 삼막사 계곡은 수량이 적은 편이어서 물에 성큼 뛰 어들 만큼은 아니지만 더위를 피해 물가를 찾아 정이 담긴 도시락을 나누는 가족들과 삼성산 산행을 마친 후 시원한 그늘에 삼삼 오오 모여앉아 땀을 식히는 등산객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제공한다.

계곡에 오르는 길은 경사진 오르막길로 다소 숨이 차지만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마 치 터널같이 빼곡히 우거진 숲길은 상쾌하 다. 이 길은 산악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훈련하기 좋은 언덕코스로 소문났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5의1 문의: (031)8045-5591 (안양시 문화관광팀) -주변관광지: 삼막사, 망해암, 안양예술

물 맑기로 '천하제일' 글램핑장에서 보내는 멋진 여름밤

#신선이 노닐던 '백운계곡'

예로부터 포천은 물 맑기로 유명한 고을 이다.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이 말에 신빙성을 준다.

그중에서도 백운계곡이 물 맑기로는 제 일이다. 물도 맑지만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계곡으로 꼽히는 명소다. 또 백운산 정상 부 근에서 출발한 골짜기는 그 길이가 10km에 이르고,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흘러가는 물 줄기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듯 아 름다운 절경 때문에 한번 방문했던 피서객 은 또 다시 찾게 된다. 청정계곡을 따라 흘 러내려온 물은 '신선이 내려와 놀던 자리'라

는 뜻을 지닌 선유담에서 절정을 맞는다.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 하룻밤 머물길 권한다. 주차장 맞은편에 새 롭게 문을 연 캠프장이 아쉬움을 달래준다. 장비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곳은 텐트·버너·코펠 등 모든 캠핑도구를 갖춘 글램핑장이기 때문이다.

-주소: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2 '백운계곡' 문의: (031)538-2069(포천시 문화관광과)

-캠핑문의: 010-2610-0601, 산마실글램

핑&오토캠핑, http://sanmasil.co.kr -주변관광지: 산정호수, 평강식물원

>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자료・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6:00 튼튼 생활체조 (재) 5:00 MBC뉴스 5:40 갈 데까지 가보자 (재) 5:00 SBS 5뉴人 6:00 생방송 OBS 5:10 내고향 스페셜 고향극장 (재)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5:10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5:10 굿모닝 510 -1, 2부 6:5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7:50 인간극장 7:00 굿모닝 대한민국 6:00 MBC 뉴스투데이 -1, 2부 7:50 (劇) 모두다 김치 8:25 아침마당 8:30 생방송 오늘 아침 8:30 (劇) 나만의 당신 8:15 건강요리대백과 미님의 식탁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A 9:00 TV소설 순금의 땅 8:45 옴니극장 <이것이 인생> 9:30 KBS 뉴스 9:30 MBC 생활뉴스 9: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9:10 좋은 아침 9:40 여유만만 9:55 제66회 제헌절 경축식 9:45 OBS뉴스 945 10:50 지구촌 뉴스 10:30 SBS뉴스 10:10 팩트 10 10:00 제66주년 제헌절 경축식 10:30 기분 좋은 날 10:00 쇼킹 70억(재) 11:15 사랑의 가족 11:00 SBS 생활경제 11:20 정치 이야기 是是非 10:30 강연 100℃ 특선 (재) 11:35 리얼스토리 눈 (재 11:00 Music & Movie 10:50 TV동화 빨간 자전거 11:30 TV 주치의 (재) 11:45 영상앨범 산 (재)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55 튼튼생활체조 (재) 11:00 KBS 네트워크특선 11:55 바른말 고운말 12:00 KBS뉴스 12 12:15 인간극장 스페셜 (재) 12:00 MBC 정오뉴스 12:00 SBS 12 뉴스 12:05 사람, 산 (재) 12:20 채널A 뉴스특보 12:30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 1:30 뉴스 특급 12:20 MBC배 전국 수영대회 1:05 스토리 VIEW <옴니다큐> 1:00 긴급출동 24시 (재) -박태환 자유형 200m 결승 1:30 생활의 달인 스페셜 1:35 우리말 겨루기 (재) 1:50 주말특별기획 <호텔킹> (재) 2:30 영상앨범 산 (재) 2:00 KBS뉴스타임 3:00 MBC 경제뉴스 2:00 SBS 뉴스 2:05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2:40 직언직설 3:00 뉴스토크 2:10 퀴즈쇼 사총사 (재) 3:10 보글 쿡 원정대 2:10 자기야 - 백년손님 3:05 OBS 애니월드 3:50 정용관의 시사병법 3:10 SBS 이슈 인사이드 3: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재) 3:4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55 꾸러기 TV 3:25 쥬로링 동물탐정 (재) 3:55 TV유치원 콩다콩 4:25 코파반장의 동화 수사대 (재) 4: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4:00 최강! 탑플레이트 4:45 OBS 뉴스 & 이슈 4:00 시사진단 4:50 박종진의 쾌도난마 4:30 꾸러기 탐구생활 4:55 튼튼생활체조 (재) 4:55 비타민 (재) 5:00 MBC 이브닝뉴스 5:45 TV주치의 5:00 SBS 뉴스퍼레이드 5:00 KBS 뉴스 5 5:20 동물의 세계 5:30 날씨와 생활 5:40 세상은 넓디 5: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00 하늘에서 본 알프스 6:2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6:05 생방송 투데이 6:00 김승련의 뉴스 TOP 10 6:00 6시 내고형 6:00 KBS 글로벌 24 6: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6:30 생생정보통 7:15 (劇) 소원을 말해봐 7:20 (劇) 사랑만 할래 6:55 으랏차차 7시 7:20 백일섭의 그때 그사람 (7:00 KBS 뉴스 7 7:50 (劇) 뻐꾸기 둥지 7:55 MBC 뉴스데스크 7:45 특집 OBS 뉴스 M 7:30 한국인의 밥성 8:25 (劇) 고양이는 있다 8:30 생생정보통 플러스 8:55 (劇) 엄마의 정원 8:00 SBS 8 뉴스 8:25 오늘의 월드뉴스 8:20 부부극장 콩깍지 (재)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55 독특한 연예 뉴스 9:30 채널A 종합뉴스 8:55 밥상의 신 9:30 리얼스토리 눈 9:00 KBS 뉴스 9 9:45 와이드Asia 10:00 수목 미니시리즈 10:00 KBS 파노래 10:00 수목드라마 10:00 드라마스페셜 10:40 OBS 京仁 뉴스라인 10:50 채널A 스포츠 뉴스 10:50 생명 최전선 <조선 총잡이> <운명처럼 널 사랑해> <너희들은 포위됐다> 11:00 웰컴 투 시월드 11:05 경찰 25시 10 11:30 KBS 뉴스라인 11:10 해피투게더 11:15 별바라기 11:15 자기야 — 백년손님 12:30 하이 스쿨 러브 온 (재) 12:30 인문강단 락(樂) 12:35 MBC 뉴스24 12:35 나이트라인 12:05 꿈꾸는 U 12:20 카톡쇼S 1:10 생활의 발견 1:35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재) 12:55 스포츠 다이어리 1:05 풋볼 매거진 골 1:05 Music & Movie (재) 1:30 관찰카메라 24시간 (재) 12 2:00 KBS걸작선 1:10 여행남녀 스페셜 2:05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 1:35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2:40 TV악학궤받





■ EBS/종합편성채	널	🗀 케이블/위성		
EBS	JTBC	캐치온	<u>스포츠</u> 원	
7:00 곤 45 로보카 폴리 9:05 책갈피 요정 또보 40 생활백과 10:10 리얼토크 부부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0 연중기획 — 행복하 교육	45 로보카폴리 5:00 이 밥이 나를 살렸다 9:05 책갈피 요정 또보 6:10 회끈한 가족 40 생활백과 7:20 이침 & 10:10 리얼토크 부부 8:40 리얼리티 카메라 오감도 11:20 세계테마기행 9:50 유자식 상필자 12:00 EBS 정오 뉴스 11:10 님과 함께		9:00 제7회 경기도 연맹회장배 한국여지3쿠션 챔피언십 12:00 VENOM in KOREA 13:30 현대옥배 월드컵 캠피언스리그 15:00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8:30 제7회 경기도 연맹회장배 한국여자3쿠션 챔피언십 19:30 현대옥배 월드컵 캠피언스리그	
13:30 초등 4학년 여름방학생	^{시IO} 12:30 고부스캔들 ^활 13:40 집밥의 여왕	XTM	Mnet	
30 꼬마거북 프랭클린 16:20 우당탕탕 아이쿠 30 책갈피 요정 또보 17:15 꼬마버스 타요 30 로보카 폴리	15:00 시구들 시켜다 30 꼬마거북 프랭클린 16:20 우당탕탕 아이쿠 30 책길피 요정 또보 17:15 꼬마버스 타요 30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1 19:00 리얼체험 땀 15:00 JTBC 뉴스 현장 1부 16:00 정치부 회의 17:20 JTBC 뉴스 현장 2부 18:30 시사집중 19:45 이 밥이 나를 살렸다 20:55 JTBC NEWS 9	9:00 슈퍼바이크 11:00 로맨스가 더 필요해 13:00 베이스볼 워너B 2014 14:00 M16 시즌2 15:00 강용석의 고소한 19 16:40 2014 프로야구 〈퓨쳐스올스타전〉 22:00 가제트	9:00 Mnet 댄싱 9 시즌2 10:40 Mnet Music Twit 14:50 쇼미더머니 시즌3 17:00 엠카운트다운 비긴즈 19:30 Live on M 21:00 음담패설 22:00 쇼미더머니 시즌3 24:20 음담패설	
20:40 디뉴 포글 21:30 한국기행	24:20 스포츠뉴스	KBS 드라마	내셔널 지오그래픽	
50 EBS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장수의 비밀	35 마녀사냥 2:10 달콤한 정보쇼 꿀단지 3:20 화끈한 가족	8:40 참좋은시절 11:20 고양이는있다 12:00 순금의땅	9:00 건강한 아침, 메디컬 365 10:00 세상발견 유레카 11:00 아시아 원시부족 탐험	
TV조선	MBN	13:20 슈퍼맨이 돌아왔다 쌍둥이 16:00 뻐꾸기둥지	13:00 시크릿 와일드 16:00 표범의 눈물	
5:55 세계로가는 아시아 헌터 6:55 TV조선 뉴스 7 8:20 TV조선 뉴스 9	3:50 나는 자연인이다 4:50 리얼다큐 숨 5:50 휴먼다큐 사노라면	18:00 고양이는 있다 19:20 조선총잡이 21:40 슈퍼맨이 돌아왔다 쌍둥이	18:00 아마존의 머리 사냥꾼 19:00 와일드 브라질 20:00 TV 동물농장	
9:40 김광일의 신통방통	6:50 굿모닝 MBN	MBC 드라마넷	복지TV	
10:50 TV조선 뉴스 11:50 데스크 360° 13:00 TV조선 뉴스 1 14:15 돌이온 저격수다 15:20 TV조선 뉴스 4 16:25 장성민의 시사탱크 17:35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흥금펀치	17:30 MBN 뉴스 와이드	7:50 소원을 말해봐 8:40 왔다! 장보리 12:40 엄마의 정원 14:00 왔다! 장보리 18:00 소원을 말해봐 19:20 엄마의 정원 22:10 무한도전 23:50 소원을 말해봐	8:30 일일드라마 송화 10:30 출동 명물포착 12:00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 14:00 WBC 생방송 전국나눔노래자랑 16:00 건강 버라이어티 – 올리브 19:00 일일드라마 송화 20:00 WBC 전국나눔노래자랑 22:00 WBC 뉴스	
18:35 엄성섭의 일도양단	18:40 나는 자연인이다	SBS 드라마 플러스	투니버스	
19:40 북한본색 20:40 낭만과 논리가 있는 토 낭만논객 21:4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내 몸 사용 설명서 24:30 新산업혁명 1:30 TV로펌 법대법	19:40 MBN 뉴스 8 20:40 신세계 21:40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1:20 현장르포 특종세상 2:20 소나무	8:20 너희들은 포위됐다 11:10 사랑만 할래 12:30 나만의 당신 13:10 유혹 17:10 나만의 당신 19:20 자기야 백년손님 20:40 오 마이 베이비	7:00 안녕 자두야2 9:30 로보카 폴리 11:00 두다다쿵 15:30 안녕 자두야 16:30 짱구는 못말려11 19:00 놓지마 정신줄 21:00 흑마녀 나가신다!	



<수상한 삼형제> (재)

김나인의 오늘의 운세 17일 (음6월 21일 근표)



31세 쾌락만 좇다보면 귀한인연 잃게되 니 마음중심 바로하고. 43세 빈수레가 요라한 법이니 너무 허장성세 부리지말 기를. 55세 타인의 실수 지나치게 책망 하지말고 적당히 용서하도록. 67세 외 형적인 변화보다 집안일이 우선이니 방 치하지말기를.



30세 급작스런 전진은 이롭지 않으니 이동문제 서두르지말기를. 42세 돈거 래 손해보게되니 남의 사탕발림에 넘어 가지말기를. 54세 물러설때 물러서는 것이 이로우니 정리 확실히 하고. 66세 근본을 무시하면 일만 힘들어지니 주 어진 환경 벗어나지말기를

2:05 MBC배 전국수영대회



3:15 브리질 월드컵 명승부

29세 타인의 실수 반전의 기회이니 적 극적으로 활용하도록. 41세 호랑이가 숲속에서 나오는 형상이니 무언가 환 경변화가. 53세 두사람 사이 문제있다 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 65세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을 흐려놓고 잡 아야 쉽게 잡히는 것.



2:50 신대동여지도 스페셜(재

28세 마음이 멀어지면 인연도 희박해지 니 자주 만나 대화를. 40세 감정에 사 로잡히면 일만 복잡해지니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52세 수하자의 실수로 책임 질일 생기니 문서처리 잘하고. 64세 명 예를 구하나 환경이 불리하니 인맥관 리 철저히 하도록.

3:00 코이카 로드



3:20 엄지의 제왕

39세 오르지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 는것이 자기방어에 이롭고. 51세 기회 가 옥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신벽에 이로 우니 조심하고. 63세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이로우니 방치하지말고. 75세 마음의 안정 찾는 일이 중요하니 휴식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23:20 사랑만 할래

38세 이동수 있다면 바로 움직이는것이 자기발전에 이롭고. 50세 환경이 좋아 지고 문서운기 되살아나니 신변에 좋은 일이. 62세 이익이 되는 길이라면 망설 이지말고 강하게 추진을. 74세 수하자 의 충고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발전에 재물 상승 이익이 되고.

22:00 어벤져스어셈블

한국역리연구소 (031)237-0693



37세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니 중 도에 흐트러지면 곤란. 49세 유통업 등에 새로운 길이 열리니 확신갖고 길 나서면 성공. 61세 능력은 있으나 시기 상조이니 너무 앞서가지말기를. 73세 고목에 꽃이피는 형상이니 오랜투자 빛을 보게될 일이.



36세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군임을 잊지 말기를. 48세 자신감갖 고 밀고나가면 뜻이 이루어지니 망설이 지말기를, 60세 이익은 골고루 나누는 것이 이로우니 합리적으로 해결을. 72 세 수하자위해 자리양보하고 길 열어주 는것이 윗사람 도리.



35세 이동문제로 고민하나 윗사람 따 르면 좋은결과 있게되고. 47세 허점보 이면 모든일이 수포로 돌아가니 비밀 유지에 최선을. 59세 비울수록 많이 담 겨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잊지말 고. 71세 한번 배신한 사람 두 번 다시 쓰는일 없도록 조심하고.



재물 무난

34세 불만있더라도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는것이 이로운 길. 46세 새로운 환 경이 펼쳐지니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58세 술한잔에 큰 실수하게 되니 중심잃지 않도록 주의. 70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마음은 헤아 리기 어려운법.



33세 지나친 편견은 건강에도 해로우 니 생각의 틀을 바꾸도록. 45세 관재 사고수 있으니 먼길 나서는일 다음기 회로 미룸이 바람직. 57세 건강에 장애 생기니 잠시 쉬면서 치료 잘받도록. 69 세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니 서둘러 이행하도록.



32세 부탁할일 있다면 고민하지말고 싱 의하는것이 유리한길. 44세 코드가 맞 는 사람들과 함께하는길 환경에 좋은 일이 많아지고. 56세 여유갖고 움직이 면 소원 이루게되니 서두르지말기를 68세 힘들때 서로 손잡아주는 것이 진 정한 가족임을 잊지말기를.

18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전면광고 제21282호 경인일보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2014-GN1-14-0075

가격부담을 소시원~하게덜어드립니다!!

대한토정기 맞춤빈를

수백만원짜리보청기,한달3~4만원으로가능합니다!!



첫 째,

[한 달 3~4만 원!!]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한 달 3~4만 원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둘 째,

[전부 무료]

들어갈 일 없습니다.

■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평생 1회 가입비이외 더 이상 아무 비용이

셋 째

[맞춤 귀속형]

■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가격부담줄인대한보청기맞춤렌탈"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 2가지

- 1. 보충현상 (Recruitment) : 일반적으로 보청기 소리가 커지면 듣는 사람에게 소리가 왕왕 울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나 노화성, 신경성 난청에는 더 두드러진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별된 "가청인식 확장 기능"(E·D·R·A)으로 왕왕 울리지 않고 똑똑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2. 노인성 난청 (Presbycousis) : 노인성 난청은 진행형이므로 방치하시면 점점 더 난청이 심해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절 렌탈 신청 상담중!!

본사직영센터 02)2248-5600

인천 · 부평직영센터 032)516-2200

분당직영센터 031)707-5787 일산직영센터 031)917-1100 의정부직영센터 031)840-2001 구리직영센터 031)551-1310 안산ㆍ시흥직영센터 031)415-3800 천안ㆍ이산직영센터 041)545-2006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15-3800 ◈천안・아산본점 041)545-2006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지사본점 051)819-0038 ◈(경남)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이처 경인일보 제21282호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19



강화 교동 '믿고사는 제철 농산물'

공영주차장에 임시장터 개장

인천시 강화군은 교동대교의 개통을 맞아 대룡리 공영주차장에 교동농산

물을 믿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철 농산물 임시장터를 개장했다고 16일 |사진

농산물 임시장터에는 주차시설은

물론 공중화장실 및 각종 헬스기구를 설치, 교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러 갓 수확한 채소류를 비롯한 교동쌀 등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8월부터는 고춧가루 등을 판 매할 예정이며 조리 음식은 판매하지 않는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주택가 차량속도 '30km/h' 이하로

상가밀집지등 시내 생활도로 교통사고 1년새 31% 급증 안전위해 제한속도 강화 경찰청, 순차적 확대 시행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 인근 도로의 전 구간 자동 차 통행 속도가 30km/h로 제한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확 보를 위해 시내 생활도로 전 구간을 '30km/h Zone'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연평 균 3.6% 증가하면서 생활도로구역 내 안전사고도 급증하자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생활도로구역은 주택가, 상가, 업 무지역 등으로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 다. 보도나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비롯해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1차선 도로라도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30km/h Zone'으로 지정된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 도로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30건으로 전년 404건보다 31.1% 늘 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1명에서 8 명으로 급증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남동 구 길병원 일대에서 시범 시행한 데 이어 이달부터 중구 동화마을, 계양 구 계양구청, 부평구 롯데마트 주변 3곳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학교 근처 등 제한속도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 나, 종합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시민

들의 보행권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 다봤다.

우선 각 경찰서별로 보행자 안전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2곳을 시범 적으로 선정해 30km/h Zone으로 지 정한 후, 순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 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제한 구간을 인천시내 생활도로구역 전역으로 확 대, 시민을 위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g79@kyeongin.com

10일이상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지하철역등 공공장소 대상 부평구, 복지시설 기증키로

인천시 부평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역 내 공 공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자전 거를 거둬들인다고 16일 밝혔다.

수거대상 자전거는 지하철역이나 공원, 공공장소 주변의 자전거 보관 대 등지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 돼 있는 자전거다.

구는 인터넷 공고 등을 거쳐 14일 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부평지역자활센터에 기증, 수리한 후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는 2011년 113대, 2012년 124대, 2013년 71대를 각각 수거해 사회복지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하고, 일부는 저가로 매각해 수익금을 공동 체 자활기금으로 활용했다.

구는 이와 관련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신고접수센터(032-509-8020)

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역 주 변이나 공원 등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 간 방치된 자전거나 차도 또는 인도에 방치돼 사용이 어려운 자전거다. 아파 트나 주택, 상가, 공장 등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전거가 늘 어나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자 전거 보관대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끼 친다"면서 "공공 자전거 보관대를 이 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무더위에 개체수 증가 "벌 조심하세요"

벌집제거 작년동기비 400% ↑ 벌쏘임 사고도 잇따라 '주의'

인천 강화소방서는 불볕 더위가 기승 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 벌쏘 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 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강화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20분경 강화군 양도면 소재 A펜션에서 공 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김모(12)군이 벌에 쏘여 119구급대 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주택에서도 서모 (58)씨가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을 호 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7월 현재 강화군 지역의 벌집제거 출동 횟수는 98건으로 지난해 25건에 비해 약 400 %가 증가했다"면서 "때이른 무더위

때문에 벌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서측은 벌집을 발견했 을 때 직접 제거하려다가 벌을 자극 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므로 반드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

또 벌에 쏘인 뒤 몸이 붓거나 통증 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호기자 kih@kveongin.com



지역 도서관 다양한 행사·사업 '눈길'

전래동요 그림책 원화전시

'시리동동 거미동동' 부개서 27일까지

일까지 부개도서관(부개동) 1층 어 린이자료실에서 그림책 '시리동동 시회를 연다.

'시리동동 거미동동'은 제주도의 꼬리따기 노래를 어린이들에게 읽 어주기 좋은 운율적 구성으로 표현 했다. 읽고 난 후 강하게 남는 꼬리 따기 특유의 이미지는 이번에 전시

부평구립도서관(관장·이희수)은 27 될 원화 21점에서도 느낄 수 있다 또한 우리 시문학 고유의 특징을 보 는 재미와 더불어 전래동요를 부르 는 슬거움노 느낄 수 있나.

> '시리동동 거미동동' 원화전시는 전시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부개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개 도서관 홈페이지(www.bppl.or.kr)



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부개도서관의 원화전시회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다른 책을 선정 해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032)505 - 0062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주안, 모바일서비스 제공

인천주안도서관은 스마트폰 시대

도서관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도 서관을 접할 수 있고, 스마트한 도 서관 서비스를 통해 나만의 맞춤형

교육 확대・매뉴얼 제작

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안전보안팀을

중심으로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

IPA 안전보안팀은 지난달 신설된

조직으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활

동·위기대응 시스템 개선·안전 교육 과 문화 확산·최상의 보안태세 유지·

비상대비태세 확립·통합안전관리체

계 구축 등 6가지를 핵심업무로 설정

했다. 이 팀은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자 실무협의회와 안

전관리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난 유형별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

도록 통합초동조치 매뉴얼도 제작할

방침이다.

을할수있다.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 스 로피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도서관을 손안에 들고 다니는 경험

이용방법은 이메일 주소와 비밀

을 받으면 된다.

리브로피아에서는 소장자료 검 색, 대출현황, 대출이력, 전자책, 열람실 좌석정보, 신착자료안내, 희망도서 신청, 공지사항 및 행사안 내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손쉽 게 접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관외대출회원카드를 소지해야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었 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안의 모바 일 회원증으로 자료 대출이 가능하 다. 문의:(032)450-9146

/김도현기자 kdh69@kyeongin.com

신간 · 대출 검색…휴대폰으로 쉽게

항만공사,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에 맞는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리 브로피아'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모바일 서비스 '리브로피아'에서

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브 설치하면 된다.

번호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후 주 안도서관을 추가하고 관외대출회원 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스마트 인증

IPA는 또 인천항 하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지원과 방재 전문

가 양성 교육체계 정립, 항만기업들 의 안전 관련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

IPA 안전보안팀 한경우 팀장은

"인천항을 가장 안전한 항만으로 만

들기 위해 안전・보안 시스템 개선과

역량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신상윤기자 ssy@k yeongin. com

인천 032)861-3204

수원 031) 231-5252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 재학생・교직원

인하대(총장·박춘배) 국토종주단이 16일 전남 여수엑스포 국제관에서 '제3회 국토대장정'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재학생 90명, 교직원 15명 등 총 105명이 참가한 국토종주단은 '개교 60주년, 인하인의 화합과 소통 의 장'이라는 주제로 19박 20일 동안

여수를 출발해 순천, 홍성, 안산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인천에 도착한다. 540km는 인하대 개교연도인 1954년 도를 기념한 코스로 인하대, 총동창 회, 인하대병원, 대한항공, 총학생회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 부평구 계양구 남구 연수구 18 * 인천 남구 연수구의 아날로그 20번

IPTV 18

부천김포 14

성남 18 *아날로그 21번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우리방송)

메트로 20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제21282호 **경인일보**

의정부 중앙공원, 녹지·문화공간 재탄생

의정부시가 지난 30년 동안 시 중심에 위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중 앙어린이공원을 시민의 만남·교육·휴식·여가·푸르름이 가득한 '책 읽는 문화 공원'으로 리모델링해 18일 개장한다.



의정부시가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던 중앙어린이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책 읽는 문화 공원'으로 리모델링, 18일 개장한다.

용인 경전철 기지·역사면적 '들쭉날쭉'

중앙공원은 지난 1982년 어린이공원 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1987년 조성됐으나, 공원시설물의 노후・불 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어둡고 폐 쇄적인 공원 환경으로 우범화되면서 불량청소년 및 노숙자의 범죄가 상시 발생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등 공원으 로의 기능 및 가치가 상실된 곳이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공원부지를 뜻 깊은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누리고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각 종 보고회 등 실제 공원이용자인 시 민 및 공원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 후 사업을 추진했다.

새단장한 문화공원은 약 1천653㎡

1987년 조성 노후 우범화 만남·독서테마 리모델링

1천653㎡ 쉼터 내일 개장 규모의 작은 공간이지만 시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 공원 하부에 의 정부1동 지하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등 유동인구가 많아 '시민 만남의 장소'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정원' 형식의 중앙분수, 초화원도 조성했다. 시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원 테마

를 위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명언이 담긴 서책부조, 앉음벽, 책 읽 는 조형물 등을 설치했고 삭막한 콘

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지의 경관 개 선, 도심 속 사계절 푸르른 녹지에서 시민이 책을 읽으며 편안히 쉴 수 있 도록 상록수를 집중 식재하는 등 시 민이 공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세 심하게 배려했다.

안병용 시장은 "나무와 숲이 있는 공원 조성은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 를 높이는 가장 큰 정책이며, 시민들 에게 시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의정부시 최초의 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앞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테 마가 있는 다양한 주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아 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재준기자 bioc@k yeongin. com

| 로컬 네트워크 |

LH, 한강신도시 연립·단독주택용 26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 한 강신도시내 연립주택용지 6필지와 블록형단독주택용지 20필지를 공

16일 LH에 따르면 연립주택용지 6 필지는 4월 착공한 김포도시철도 역 사와 가까운 우량토지로,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당초 85㎡ 초과 주택을 지을 수 있던 것을 '60㎡ 이 하'와 '60~85m' 이하'로 변경했다.

LH 관계자는 "이 땅은 지구내에 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한강변 생태공 원과 가까워 주변에 있는 주거 전용 고급 단독주택지와 함께 조용하고 쾌 적한 최고의 주거지역을 형성할 것으 로보인다"고말했다.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중소형 단

시화지구 '글로벌 네이밍' 공모 내달 9일까지

독주택에 대한 선호 추세를 반영해 대형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하고 블록 당 세대수는 늘렸다. '230~330m' 이 하'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과 '330㎡ 초과' 주택을 지을 수 있 는 땅 등 두 유형이 있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36억~178억원이다. 블록 형단독주택이란 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단위로 용지를 분 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을 말 한다. 18일 하루에 신청 접수와 추첨 이 모두 이뤄진다. 계약은 22일 체결 할 예정이다.

연립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3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김포/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시화지구 글로벌 네이밍 선정위원회 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송산그린 시티, 공룡알화석지, 국제테마파크, 갈대습지, 오이도 등 시화호 수변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아우 를 수 있는 '글로벌 네이밍'을 오는 8 월 9일까지 공모한다.

화성시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인천지 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화안사업 단), K-water 등과 함께 생명의 호수 로 재탄생해 환경회복의 상징이 된 시화호를 새롭게 브랜드화해 글로벌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했다.

세계적 친수변 문화관광 콤플렉스

으로 ▲국제적 감각(Global) ▲해양 레저 및 문화관광의 중심지(Water Complex) ▲영어, 한글 모두 가능 (단, 외국인의 발음 고려) ▲이해하기 쉬우면서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 등 을 담은 글로벌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외국인도 부르기 쉬워야 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대상 상금 500만원 등 30편 에 총 상금 1천만원이 시상되며, 전용 사이트(www.brandcontest.kr/ sihwa)에서 응모할 수 있고 스마트폰 에서도 직접 응모가 가능하다. 당선 작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초 발표 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화지 구 글로벌 네이밍 선정위원회'로 문 의(02-3445-3440)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yeongin.com

로 거듭나는 시화지구에 걸맞은 이름

의왕시, 中企 전시참가 지원… 판로개척 성과

의왕시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 업이 120배가 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역 12개 중소기업에 국내 전시회 참가비(업체당 200만원) 를 지원해 상반기에만 기업들이 29억 원의 생산제품 판매 계약 성과를 거 뒀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참가비를 지원받은 12 개 업체는 최근 킨텍스, 코엑스 등지 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요트 및 보트 엔진관련 부품, PCB세척기, 자동차 레이저 속도감지기, 치아교정부품 등을 822건 상담해 282건 29억원의 계약에 성공했다.

이중 요트 엔진관련 부품 연구 제 조업체인 현대씨즈올(주)는 16억원,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업체인 (주)오킨스전자는 3억원, 자동차 레 이저 속도 측정기 제조업체인 컴레이 저(주)는 2억원, 대기오염측정시스 템 제조 업체인 KNJ엔지니어링은 1 억원 등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국 내외 바이어들을 만나 새로운 시장 를 보였다"며 "향후에도 경쟁력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국내 외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석철·문성호기자 moon23@ k veongin, com

고양시, 네티즌 선정 '상반기 베스트 그 곳'

고양시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한 '2014년 네티즌이 뽑은 상반기 베 스트 그 곳'으로 고양시가 선정됐다 와 아빠가 함께 떠나는 체험여행, 신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를 네티즌들 이 직접 뽑아 선정된 9개 지자체를 한 국관광공사 홈페이지와 온라인을 통 해 집중 홍보하는 사업이다.

고 16일 밝혔다.

행작가를 통한 콘텐츠 기획을 마치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주요 관

광지가 소개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엄마 한류 홍보관, 생태공원, 테마동물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쥬쥬, 야간관광, 맛기행 등 고양시를 2009년부터 도입된 '베스트 그 곳'은 알리는 6가지 테마를 주제로 한 다양 한 관광자원이 홍보되고 있다.

시 신한류관광과 관계자는 "대한 민국 대표 관광기관인 한국관광공사 는 하루 평균 60만명이 접속할만큼 이에 따라 고양시의 경우 최근 여 신뢰가 높아 고양시 관광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미소꽃 해바라기 활짝



양평군 지평면 무왕1리 마을에 해바라기가 만개하면서 이색적인 관광체험마을로 각광받고 있다.

최대 19% 편차 엉터리 고시

17~19일 전문대 엑스포

경복대 직업체험관 운영

경복대학교(총장·전지용)는 17~19일

3일간 고양 킨텍스 전시관에서 열리

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최

'2014 전문대학 엑스포'에 참가해 직

경복대 직업체험관은 임상병리과,

뷰티아트과, 준오헤어디자인과, 약

손명가미용과 등 4개 학과가 참가,

뷰티·의료보건 4개 직종(임상병리

사·뷰티아티스트·헤어디자이너·스

업체험관 2개 부스를 운영한다.

"차량기지 면적이 1만5천㎡나 차이 나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 니까?"

용인시 경전철의 차량기지 면적이 실제보다 1만5천㎡나 작고, 수포역 은 1천60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차량기지와 역사 면적이 최대 19% 까지 편차가 나는 엉터리로 고시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이같은 사실은 용인시가 최근 고시 한 기흥구 구갈동~처인구 포곡읍 전 대리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철 도, 도시철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과정에서 밝혀졌다.

고시안에 따르면 처인구 삼가동 소 재 차량기지 면적은 지난 2012년 시 설부분 준공 당시 6만8천174㎡ 였으 나 실제로는 8만3천230㎡로, 1만5천 56㎡ 늘어나 편차가 18%나 됐다.

이 밖에 삼가역은 6천284㎡에서 5 천295㎡로 989㎡가, 동백역은 5천 910㎡에서 5천709㎡로 201㎡가 각각 줄었고, 강남대역은 6천856㎡에서 7 천345㎡로 488㎡가, 고진역은 7천 162㎡에서 7천394㎡로 232㎡가 각각 늘어나는 등 기흥역을 제외한 14개 역 모두에서 기존 고시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났다.

킨테라피스트)을 체험할 수 있다. 임

상병리과는 첨단 검사장비와 혈액형

검사, 채혈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

고 뷰티아트과는 네일아트 작품전시

와 시술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또 준

오헤어디자인과는 헤어스타일링 작

품전시와 함께 두피상담을 마련했고

약손명가미용과는 피부 상담, 족압

측정, 발균형 분석 등 다양한 미용서

비스를 제공한다. '100% 취업보장형

브랜드학과'인 준오헤어디자인과와

약손명가미용과는 해당 업체 실무진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 com

이 나와 직업상담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 경전철이 운행된 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차량기지와 역사들의 면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재 살못된 고시 내용을 토대로 각 종 자료를 산출하는 등 엉터리 행정 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에 고시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변경 고시했다"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양평군 지평면 무왕1리 마을이 이색 양평무왕1리 체험마을 각광 적인 관광체험마을로 각광받고 있다.

무왕1리(이장・김기남)는 지난 3월 부터 마을주민들이 심은 해바라기가 최근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무왕 1리 마을은 속지명이 '저른' 으로 '구름이 쉬었다 가는 마을'이 란 뜻을 담고 있다. 약 196세대 400 명의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마 을 주민들은 지난 3월 김기남 이장 이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강소 농 교육'에 참가한 뒤 마을 지도자 들과 매월 1회씩 반상회를 열고 마 을발전에 관해 논의하던 중 경기도

농가소득·관광자원 두토끼

농업기술원 강소농현장기술지원단 의 자문을 받아 농가 잔여지에 해비 라기를 심었다.

무왕1리의 해바라기는 토종 해바 라기를 개량한 품종으로 다 자랐을때 키가 1m50밖에 되지 않는 대신 씨가 많고 바람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미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연구해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일반 농작 물에 비해 ㎡당 3배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다. 감자와 함께 이모작도 가능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기남 이장은 "올해 처음 식재 한 해바라기가 만개한 모습에 마을 수빈 모누 뿌늣함을 느끼고 있나"며 "올해는 약 4만9천586㎡ 규모였지 만 내년에는 약 33만578㎡이상 부 지에 해바라기를 식재할 계획으로,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10년안에 마을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성껏 가꾸겠다" 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 yeongin. com

한경대 '취·창업·재교육 메카' 주목

교육부 평생학습중심대 영예

국립한경대학교(총장·태범석)는 최 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년 평생학습 중심대 학육성사업'학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경대는 사업비 2억1천 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교가 고졸 취업자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계속교육 지원시스템을 제공하 고 성인학습자에게는 취·창업, 재교 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과 정은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구분되며 학위과정은 '후진학 거점대 학 유형'과 '성인계속 교육대학 유형' 으로 나뉜다. 한경대는 지난해에 이 어 '후진학 거점대학'으로 선정돼 기 존에 운영하던 경영학과, 행정학과 (글로벌물류트랙) 외에 특성화 분야

인 농수산식품 IT융합창업학과, 농 어촌 레포츠학과, 토목안전환경공학 과(생태조경트랙)가 이번 사업을 통 해 추가돼 2015년 3월부터 총 9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경석 평생교육원장은 "고졸 취 업자들은 일과 병행해 학위를 취득함 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체는 전 문인력을 통해 산업실적을 높여 시너 지 효과가 난다"며 "특히 우리 대학 은 평택항과 인접해 있어 규모에 비

해 턱없이 부족한 평택항 물류 전문 가들을 육성해 진출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대는 앞으로도 성인학습 자(특성화 고졸재직자)의 특성을 고 려한 교육과정, 교과목 개편, 장학금 및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 을 개설해 취·창업관련 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



메트로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21 경인일보 제21282호

60년 재산권행사 막는 군사시설물 옮겨 주오

김포 양촌읍 해평마을 주민들 "도시개발제안 작전이유 부동의 현대화시설 이전도 거부" 반발

김포시 양촌읍 누산5리(해평마을) 주 민들이 60년 가깝게 주민 재산권 행 사를 가로막는 군사시설물 이전을 요 구하고 나섰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포함된 뒤 사업지역 확정과정에서 국 방부와의 협의문제로 제외되면서 주 민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김포시와 해평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양촌읍 누산리 332 일대 29만6천779 m^{*}부지에 대한 환지방식의 민간도시 개발사업을 김포시에 제안, 최근까지 관할 군부대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에 나섰지만 작전상 문제를 이유로 부동의 처리됐다. 군(軍)은 사업지가 진지 전방 재활지와 연결된 48번 국 도와 인접해 있어 전투·화력운용 제 한에 따른 진지 기능발휘와 전투수행 저해 등을 부동의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발전을 가 로막는 수십여개의 군 벙커 등의 군 시설물이 토지주 동의없이 설치된데 다 한강신도시 개발로 군사시설에 대 한 환경적 요인이 변화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 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마을과 불과 10 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않은 48번 국 도 주변에 지상 11m높이의 건축물은 조건부로 건축을 허가해놓고 변화된 군작전 환경에 맞는 현대화된 군시설 물을 군의 조건대로 이전 설치하겠다 는 제안도 군이 거부하고 있다며 반

이에따라 주민들은 최근 무용지물 인 군시설로 인한 군의 과도한 개발규 제로 인한 생활불편과 지역발전을 저 해하는 군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탄 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주민 300여명은 지난 6월 29일 누산지구 군시설 이전 및 군 보호구역 해제, 주민들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 의 조건부 동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고 '누산지구 군사시설이전 주민대책 위원회'를 구성, 국방부 등에 군사시 설 이전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영길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제 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한강 신도시 여건에 맞게 군이 도시개발사 업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한 뒤 사업 준공전까지 군 시설 이전 등 군 작전 계획을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

해평마을은 지난 2003년 한강신도 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신도시사업부 지에 포함됐다가 국방부와의 협의 문 제로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곳으로 '2020김포신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김포/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풍년들게 제발 비 좀…"

16일 오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장수고개에서 김성기 가평군수가 풍년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가평군민의 풍년기 원 소망 기우제'에는 초헌관에 김성기 군수, 아헌관에 조중윤 군의회 의장, 종헌관에 조정현 문화원장이 각각 나서 단비와 풍년을 기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원하는 제례를 올렸다.

용인 '이동덕성산단' 조성 한화 3천억 투입 본격추진

용인시의 숙원사업인 이동덕성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3천억원을 투 자하는 (주)한화도시개발사업의 참 여로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시청 정 책토론실에서 경기도와 용인시, (주)한화도시개발이 '용인테크노밸 리 조성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내 외 경 기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이동덕 성산단 조성사업의 새로운 출발과 이 미지 개선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명칭을 '용인테크노밸 리'로 변경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결핵검사 받아라"… 일방 통보

이천보건소, 요가 수강생에 날짜・시간 임의 지정 권고 1주일후 역학조사 늑장대응

이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 는 요가 프로그램 강사가 결핵으로 판 명된 가운데 이천시보건소가 수강생 들 사정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 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 감염여부 검사 를 받을 것을 권고, 편의주의 행정이 란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보건당 국은 요가강사의 활동성결핵 판명 확 인이후 1주일 뒤에나 수강생들의 전 염여부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벌여 늑장대응이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

등에 따르면 이천 관내 증포읍•부발 읍•대월면•모가면•백사면•마장 면・서희문화센터 등 7곳에서 시간 제 요가강사로 일하던 임모씨가 지 난 3일 활동성결핵으로 판명됐고 보 건당국이 4일 이를 확인, 질병관리 본부와 함께 역학조사를 벌였다.

시보건소는 역학조사 매뉴얼에 따라 7곳의 수강생중 지난 4월부터 강사와 접촉한 약 145명에게 지난 11 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일과 14일, 15일 등 3일간(1일 3시간 검 사) 검사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결핵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 다. 결핵검사에 대한 이유와 설명없 이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지정. 동보하사 일부 식상인은 검사를 받 16일 이천시보건소와 주민자치위 지 못했고 일부는 흉부엑스레이(X- 심재호·서인범기자 sjh@kyeongin.com



Ray)만 촬영하고 피부반응 검사를 받지 못했다. 또 결과확인과 사후 1~ 2차 검사를 위한 검사기간 방문으로 일부 직장인은 일정상 어려움을 호 소하기도 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자치위 에 수강생 명단을 요청했지만 빨리 집계가 안됐고 질병관리본부 일정에 맞추다보니 시간이 늦어졌다"며 "늑 장대응은 아니고 지금까지 100여명 의 수강생이 검사를 받았으나 감염

LH, 세교6단지 미분양 할인분양 논란

감정가보다 최대8천만원저렴 비대위 "추진 중지" 거센 반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산 세교 지구 6단지 미분양 세대에 대해 기존 분양공급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 인 분양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빚 더미 공기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LH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 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강수지만 기 분양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16일 LH 오산사업단과 6단지 주

민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미분양세 대 380세대 중 10세대를 지난 4월 감 정평가 이후 최대 8천만원가량 할인 된 가격으로 재분양을 추진중이다.

2008년 9월 최초 공급 시 공급면적 127㎡ 세대의 분양가는 3억1천121만 2천원이었지만 현재 전세입주자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은 2억8천152만1 천원으로 3천만원가량 낮아졌다. 154㎡ 세대의 경우 최초 분양가(3억8 천59만원)와 분양전환가(3억616만3 천원) 차이가 7천400만원에 달한다. 앞서 2011년 LH는 미분양 세대에

해 전세입주자를 모집하고 전세기간 이 만료되는 시점에 우선분양권을 부 여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분양 전환가 산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가격과 최초 분양가가 큰 차이를 보 이자 680세대 일반 분양자들이 반발 하며 분양 중지와 함께 차액분 지급 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해 '전세형 매매'를 도입하고 이듬

세교6단지 소병규 비상대책위원장 은 "LH가 주민들 몰래 감정평가 이 후 가구당 수천만원씩 할인된 가격으 로 분양을 하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를 꾸리게 됐다"며 "기존에 수차례 홍보했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들이 틀어지면서 감정평가 하락이 됐는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 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은 LH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오산사업단 관계자 는 "최초 분양 때와는 6년 가까운 시 일이 지난 데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 이어져 모든 아파트의 자산가치 하락 으로 감정평가가 떨어졌고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분양하게 된 것"이라 며 "기존 입주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LH 역시 부동산 가격 하 락으로 경영상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급식관리지원센터 특정大 밀어주기?

양주시, 자격요건 관내로 제한 식품영향 관련학과 개설 'A대' 단독지원선정 '꼼수행정' 비난

양주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 탁기관을 공모하면서 자격요건을 관 내로 제한, 특정대학을 밀어주기 위한 '꼼수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관내 A대학과 양주시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 고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 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 양관리를 지원하는 곳이다.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업자 확 정승인을 받아 6월 위탁기관을 공모 했으며 공모결과 A대학을 올해 7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 위 탁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올해 7~12월 6개월간 위탁운 영비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1억5천만 원을, 내년부터는 연간 3억여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위탁기관 선정과정에 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가 이드라인에 참여 공인기관에 대한 명 시만 있을뿐 복수지원 사업자 심의에 관한 원칙과 제한 등 규정이 없자 이 를 임의로 해석, 자격요건을 관내 소 재 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공모에는 관내에서 A대학 만 단독 지원했으며 단수 지원시 재 공고 원칙에 따라 재공고했지만 동일 한 자격제한을 둬 A대학만 단독참여 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관 내에 식품・영양관련학과가 개설된 대 학 또는 산업대학은 A대학 한곳뿐이어 서 절차상 공모과정만 거쳤을뿐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어 특정대학 밀어 주기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면 시흥시의 경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고에서 1곳만 신청하 자 재공고를 통해 서울과 인천으로까 지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 관내 소재 만 고집한 양주시와는 대조적인 모습

시 관계자는 "광역으로 공모할 경 우 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에 어려움이 있고 위탁기간내 센터설 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 제 한이 불가피했다"며 "특정대학을 밀 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 다. 양주/이상헌기자 Ish@k yeongin.com

'화성시의 발전과 기업의 성공' 화성상공회의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출업무 지원 교육기회 인력채용 확대 지원 회원기업 지원 기업정보 시설이용 제공 혜택 기업애로 해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향남읍 행정리 327) 확성상공회의소 전화: 031-350-7900 팩스: 031-350-7990

http://hwaseongcci.korcham.net

여주도 '보호관찰소 이전' 반발 움직임

지난해 성남 분당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가 여주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여주 지소(이하 여주지소)가 옛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이전을 추진하 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여주시와 여주지소 등에 따르 면 현재 여주 세종로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차 운영하고 있는 여주지소가 홍 문동 옛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의 이 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옛 여주지청 청사는 여주지청이 지난 2012년 11월 현암동 법무단지내의 신청사로 이전, 현재 빈 청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근에 아파트 등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범죄 우려가 높 아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흥동에서 열린 원경희 시장의 시민 과의 대화에서도 조경옥 홍문7통 부 녀회장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 근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시장에게 전달했다. 주민 들은 향후 보호관찰소 이전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법무부를 방문,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주지소 관계자는 "이 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 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보호관찰대 상자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나 단순 절 도 등 경미한 범죄자여서 성폭력 등 의 범죄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 고 설명했다.

여주/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사회 **22**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제21282호 **경인일보**

날씨

17일 목요일 (음력 6월21일)

장마전선, 오후엔 올라오니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 고기온은 26~30도의 분포가 되겠다.



▲ 해뜸 05	:25 해짐 19:51	
▲ 달뜸 22	:59 달짐 10:48	

- 1	77	L	77	A (m ()		771	7/	_
글뜯	등22:59 달	설짐 10:48	3		썰	를 02	2:04	14:
기II	500.20	19.31		진선	22	<u>5</u> ∪0)· IU	20

바다	풍 향	풍 속(%)	파 고(m)
서 해	남~남서	5~9	0.5~1.0
남 해	남서~서	5~9	0.5~1.0
동 해	남~남서	6~11	0.5~1.0

세모그룹 출신 해경 간부 해운비리 연루 정황 포착

인천지검 수사… 세월호 연관은 아닌 듯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세모그룹 근무 경력 논란으로 보직 해임된 해경 고위 간부가 해운비리 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 차장검사)은 이모(53)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다 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해운조합 비리 등을 수사하 는 과정에서 이 전 국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 해졌다.

경정 특채 출신인 이 전 국장은 1991~1997년 세 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그룹 조선사 업부에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기 도했다.

검찰은 앞서 여객선사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 고 특정업체의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 긴 혐의로 해경 고위 간부 출신 김모(61) 한국해운 조합 안전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국장을 피내사자와 피의 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맞지만 수사중이라 구 제석인 혐의는 아식 밝힐 수 없나"며 "나반, 세월 호나 유병언 관련 수사와 연루된 것은 아니다"라 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광고문의

수원 031) 231-5530 인천 032) 861-3200

분통 시민들, 택시로 전 정류장 가거나 지하철행

광역버스 입석금지 첫날

오는 차마다 '좌석 없음' 경기, 8시께 금지령 해제 "뭐하는 거냐" 격렬 항의

인천선 지하철이용객 급증 "앞으로 어쩌나" 시민 걱정

16일 오전 출근길은 그야말로 전쟁 터였다. 평소에도 45인승 버스 좌석 은 물론 입석승객까지 들어차 콩나 물 시루를 연상케 했던 출근버스에 입석이 금지되자 정류장마다 시민 들의 하염없는 기다림이 계속됐다.

이날 오전 7시께 수원 우만4단 지 아파트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 는 승객들이 수십여m씩 줄을 서 있으나, 한참이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동수원TG 진입을 두 정거장 남겨둔 사실상 마지막 정류장으 로, 매번 오는 버스 앞유리창마다

'잔여좌석 없음. 다음 차를 이용하 시기 바람'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출근길 1분이 아쉬운 시민들은 빨간색 광역버스가 정류장으로 들 어올 때마다 목을 빼고 기다리지 만, 버스는 야속하게도 정류장을 지나쳤다.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은 택시를 타고 사정이 나은 앞 정류장 으로 이동하거나 목적지 인근으로 향하는 다른 버스를 타기도 했다.

시민 박진구(35)씨는 "차라리 서울 사당에 가서 지하철로 갈아탄 뒤 강남에 가는 게 낫다"며 "마냥 기다리다가는 점심이 돼서야 회사 에 도착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쏟

아냈다. 같은 시각 용인시 동천동 머내 정 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강남이 든 종로든 서울로 향하는 버스는 잇 따라 무정차 통과를 했다. 발만 동 동 구르던 시민들은 고속도로를 경 유하지 않는 버스를 타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택한 시민들로 지하철 역마다 북새 통을 이뤘다.

김보미(31·여)씨는 "입석이 안 된다고 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출 근했다. 다른 날보다 두 배 이상 늘 어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출근했 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우려됐던 출근대라이 현 실로 다가오자 경기도에서는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입석금지를 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류장 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정류장에 나와있던 경기도 공무원과 버스업 체 관계자 등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이삼순(56·여)씨는 "대책도 없이 금지를 시켰다가 곧 바로 해제해 이용객들을 골탕먹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고 속도로 진입 전 정류장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배차 계획을 조 정, 중간정류장에서도 버스가 출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김범수·윤설아기자 faith@ kyeongin.com

아파트 단지 조형물 흉물 신세

의무 설치 불구 관리 방치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 곳곳에 설치 된 예술품 상당수가 관리 부실 등 으로 파손된채 흉물스럽게 방치되 고있다.

단지내 예술품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설치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 584세대 규모의 아파트 정문 뒤에는 무릎을 꿇은 남성이 장대를 지고 서있는 듯한 조각석상

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조금만 다가서면 청소를 하지 않은듯 새까 만 흙먼지 때가 석상 대부분을 덮 고 있고, 돌과 돌이 접합된 부분을 중심으로 군데군데 돌이 떨어져 나 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다. 지난 2002년 착공된 이 아파트는 그동안 단 한번도 석상의 청소를 하지 않았고, 보수를 위한 예산책 정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영통동 B아파트도 사정 은 마찬가지다. 단지 중앙에 15m 높이의 거대한 새 모양 조형물이

있으나 바닥면과 조형물의 접합부 분 전체가 표면이 벗겨지고 파손돼 금방이라도 무너질듯 위태로워 보 인다. 특히 새 깃털의 끝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부식된듯 색깔이 파랗 게 바래있다. 지난 1999년 완공된 이 아파트 역시 입주후 한차례도 조형물 관리를 하지 않았다.

주민 김모(47·여)씨는 "아파트 분양가에 예술품 설치비까지 포함 돼 있다던데 헛돈을 쓴 것 같아 불 쾌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지어진 연면적 1만㎡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전체 건축비 의 0.1~0.7%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동상이나 그림 등 예술품을 단지내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관리를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예술품 의무 설치 등 관련 법에 대한 이의 신청 이 많아 개선과 폐지 등에 대해 재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경기대 사회적 배려 전형 단원고 2학년 전원에 자격

경기대학교는 오는 2016학년도 입 시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를 겪은 단원고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사회 적 배려 전형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배려자 전형은 학생부와 자 기소개서, 면접으로 평가되는 수 시 전형이며 경기대에 올해 50여명 이 이 전형으로 입학했다. 2016학 년도에는 6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 으로 학교 즉은 내나봤나.

이 같은 내용의 입시안은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 협)에 제출됐다. 대교협은 경기대 를 포함한 각 대학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출받은 2016학년도 입시 안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윤수경기자 yoon@kyeongin.com

인천시도 구리디자인시티 사업 반대

"풍납취수장 수질에 악영향' 상수도사업본부, 정부 요청

구리시가 인천 시민이 마시는 수돗 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 인 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1일자 22면 보도) 인천시가 적 극 반대하고 나섰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이 인천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 고 있는 풍납취수장의 안전을 위 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중단을 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환 경부 등 중앙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부지의 92%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이라며 "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 한구역 해제와 대규모 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우수(빗물 등) 유출량의 증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악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 문동·수택동 일대 172만1천㎡에 디자인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호 텔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 는 인천시에 하루 평균 44만 t의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

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개발사업 진행시 상수원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도권지역 77개 시민환 경단체로 구성된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한 경 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 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구리월드디자인 시티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 단체는 "'구리월드디자인시 티사업'은 수도권 1천만 시민의 마 실 물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구리시는 사업성과 환경성을 전 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교황 방한·AG 대비··· 개인총기류 영치

16일 오후 인천 연수경찰서 무기고에서 경찰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인천아시 안게임에 대비해 임시 영치된 개인 소지 총기류를 정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안내문 발송 등으로 개인이 보관중이던 총기류를 자진 제출받아 임시로 영치하고 응하지 않으면 내달 10일까지 추적해 총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경인일보 제21282호 **사회**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23**

괭이부리마을에 기부채납 김치공장 '그림의 떡'

■ ᄼ마서도 쪼바초 ^ㆍ



인천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지어진 김치공장이 복잡한 행정규제로 인해 가동을 하지 못한채 공장 건물만 덩그러니 서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대기업이 쪽방촌 자립 지원이달초 완공해 동구에 귀속

사회적기업 인증 복잡하고 운영비 1억원 큰부담 '발목' 가동못한채 주민만 '발동동'

인천의 한 대기업이 동구 만석동 쪽 방촌(일명 괭이부리 마을) 주민 지원 을 위해 기부채납한 김치공장이 준공 된 지 보름이 넘도록 텅텅 빈 채 운영 되지 못하고 있어 이 곳 주민들이 분 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치공장 건물은 이달초 완공됐지 만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란데다 공장 가동을 가로막는 복잡한 행정규제 때문에 쪽방촌 주민들은 빈 공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 만석동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상 2층(연면적 330㎡)규모의 김치공장을 지어 동구에 기부채납키 로 했다. 공장 운영은 주민들이 사회 적 기업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이 었다. 공장은 지난 2일 준공됐지만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됐다.

회사가 기부채납한 건물은 동구 행정재산이 됐고 주민들이 김치공장 운영을 위해 설립한 (주)해맑은 김치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해 일반 주식회사와 다름없는 사기업으로 돼 있다.

일반 사기업이 지자체 소유의 재산

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상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첫번째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동구는 관련규 정에 따라 김치공장 건물 재산가액 (10억원)의 5%인 5천만원을 주민들 이 사용료로 지불해야 공장 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사용료 를 감면해 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9월 이후에나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동구는 내다보고 있다. 조례 제정없이 사회적기업으로 인 증을 받아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인증절차가 까다로워 내년 상반기에나 (주)해맑은 김치가 사회 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쪽방촌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5

천만원으로 김치공장 운영을 위한 회 사를 설립했지만 복잡한 행정규제 때 문에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난관이 있다. 김치공장을 가동하려면 각종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과 운영자금 등 1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쪽방촌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라는 점이다.

김치공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하루라도 빨리 김치공장이 가동돼야 수익이 나고 우선 채용한 사무직 직원의 월급도 주는데 현재 빈 공장에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며 "현재로선 당장 공장 가동이 힘든 처지"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이공명





인천정보진흥원 간부 비리 수사

특정업체서 대가성 금품정황

검찰이 인천시 출자 기관인 인천정보 산업진흥원의 간부가 특정 업체를 도 와 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정황을 포 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검사·문홍성)는 최근 인천시 남구 도 화동에 위치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간부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2011~2012년 인천정보산업 진흥원이 진행하던 초근거리통신 지 원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상 업체로부 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 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측이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준 혐의로 수사를 벌이던 중 이같은 정황을 잡고 수 사를 확대했다.

2002년 개원한 인천정보산업진흥 원은 NIPA의 일부 사업을 대신 맡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압수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또다른 비리가 있

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석진·김민재기자 kmj@kyeongin. com

부평문화재단 대표 수상한 상근직 전환

무보수 ➡ 연봉 6천만원 구, 변경 조례 개정안 추진 '구청장 사람 챙기기' 논란

인천시 부평구가 부평문화재단 대표 이사를 무보수 비상근직에서 연봉 6 천만원 상당을 받는 상근직으로 변경 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근 의회에 제 출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년 전 대표이사(상임이사)를 비상근으로 전환했던 것을 책임경영을 위해 상근직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지만, '구청장 사람 챙기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

고있다

부평구는 지난달 26일 의회에 '인 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부평문화재단 대 표이사는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상근 직이 된다. 부평구는 '효율적 조직관 리', '책임 경영'을 도모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는 2011년 4월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고쳐 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을 비상근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역할을 하던 상임이사 자리를 없앴다. 조례 개정은 당시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주도했는데, 당시 상임이사는 한나라당 소속

이었던 박윤배 전임 구청장이 임명했던 A씨였다. 조례 개정에 따라 부평구는 임기가 15개월가량 남아 있던 상임이사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부평구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부평구는 작년 5월 A씨에게 잔여임기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약 8천800만원을 배상했다.

일부 구의원들은 이번에 부평구가 갑작스레 조례를 바꿔 부평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수천만원의 연봉을 주 려는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구의원은 "문화체육 분야 예산 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표이 사 연봉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선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재단 직원이 35명에서 81명으로 늘어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했다"며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검토를 했던 부 분"이라고 해명했다. 부평구의회는 17일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1백여 장애인 '정보화 대제전' 열기

16일 인천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2014 인천시 장애인정보화 대제전'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정보활용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와 인천장애인 재활지원센터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정보검색과 정보활용 2개 종목에서 인천의 20세 이상 장애인 120여명이 출전했다. 개막식에는 한태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장, 임윤명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장, 김장근 인천시보건복지국장 등 2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살충제 교사' 시민감사관 투입

감사팀에 심리상담사 포함 시교육청 "엄중 조치" 지시

체벌 과정에서 학생의 얼굴에 살충 제를 뿌린 인천 I고교 사건(경인일보 7월 16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이청 연 교육감이 16일 시민감사관이 포 함된 감사팀을 투입, 철저하고 객관 적인 조사와 함께 엄중한 조치를 지

시했다. 감사팀에는 피해학생의 정서적·심 리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사도 포함 됐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시간 끌기식으로 대처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대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직후인 15일 학교폭력 담당부서에서 1차 조사를 마쳤다"면서 "시민감사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조사는 1차 조사를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세로 철저하게 진행하겠다

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

조사팀은 이날 오후 I고교를 방문해 체벌을 가한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피해학생은 체험학습을 떠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팀 관계자는 "피해학생의학부모와 만나 동의를 구한 뒤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면서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제자의 얼굴

에 살충제를 뿌린 행위는 가볍게 처 벌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 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담당교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

인천시 남동구 소재 I고교 2학년 담임교사인 A(52)씨는 지난 11일 오 후 8시께 친구들과 야간자율학습 중 교실에서 게임을 하다 벌칙으로 담임

고있다.

교사가 오는지 망을 보던 B(17)군을 적발해 꾸지람을 하는 과정에서 모기 퇴치를 위해 교실에 비치돼 있던 에 프킬라를 B군의 얼굴에 뿌려 물의를 빚고 있다.

/김도현기자 kdh69@kyeongin.com





함께하는 **우리는 안산**입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뚝심있는 안산입니다 우리는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용기있는 안산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향해 솟아나는 무한긍정, 대한민국의 안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안산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배구단

감독 김세진

전면광고 24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제21282호 경인일보



수많은 프로골퍼를 배출한 국내 최고의 학생골프대회! 올해의 우승자는 누구?

대회일시 1차 예선 : 2014년 8월 20일 (수) 06:00 ~ 참 예선 : 2014년 8월 21일 (목) 06:00 ~ 참 예선 : 2014년 8월 21일 (목) 06:00 ~ 참 기반 전국 중 · 고등학생 선착순 500명 접수기간 2014년 7월 14일(월) ~ 7월 31일(수)까지

본 선: 2014년 **8월 22일 (금)** 06:00 ~ **경기방식** 36 Holes Stroke Play

신청방법 경기도골프협회(kgdagolf.or.kr) 홈페이지 참조

E 그라운드 남자 고등부 : 청색 ● 여자 중등부 : 적색 ● 남자 중등부, 여자 고등부 : 백색 ○

문의전화 경기도골프협회 **031-253-6277**





















